

김수옥 대표 "K-진단키트, 美·유럽서 퀀텀점프" 15

홍춘욱의 '전쟁을 바꾼 경제이야기' 23

코스피(미일) ▼ 1685.46 (-69.18P) 코스닥 ▼ 551.84 (-17.23P)
환율(달러당 원화) ▲ 1230.50 (+13.10원) 금리(국고채 3년물) ▲ 1.092% (+0.022%p)

기업 '현금 확보 전쟁' 3월 단기차입 8.3兆 ↑

단기차입 전달보다 7배 늘어
비상경영 자금 마련 차원
이마트 등 부동산 매각도
"기업 신용도에 악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마비' 사태로 국내 상장사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들은 만기 1년 이하인 단기차입금을 늘리고 유형자산 처분에 나서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상장사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는 24건이다. 전년 동기(12건)와 전달(11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는 기업이 직전 공시한 단기차입금 잔액보다 특정 기준 이상 단기차입금을 늘리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다. 이때 '단기차입금'은 실제 단기차입 실행 규모에 더해 '마이너스통장' 적인 단기차입 한도 설정액까지 포함한다.

지난달 공시를 통해 증가를 결정한 단기차입금은 8조2693억 원으로 전달(1조1125억 원) 대비 737% 급증했다. 지난해 동기의 3조399억 원보다는 272% 늘었다. 전달 단기차입금 증가액 중 필요할 때 단기차입할 수 있도록 한도 설정액을 늘린 규모가 6조1478억 원(74.8%)이다. 나머지 25.2%는 차입을 바로 실행하는 규모로 2조715억 원이다.

지난달 31일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하나금융투자가 유동성 추가 보강 목적에

서 2조 원 규모의 금융기관 차입 한도를 신규 설정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단기차입금을 400억 원, 롯데칠성음료는 2500억 원 각각 늘리기로 했다. 단기차입금을 330억 원 늘리기로 한 제이에스커피레이션 측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충분한 중장기 유동자금을 사전에 비축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대부분 기업이 안정적 유동성 확보와 기업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

또 차입금을 상환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한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상장사도 늘고 있다.

지난달 유형자산 양도결정 및 처분결정 공시만 12건으로 전년 동기(4건) 대비 3배 늘었다. 유형자산의 양도 및 처분 예정 가액 합산은 1조36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2141억 원)보다 484% 급증했다.

이마트는 지난달 25일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곡 도시개발사업 업무용지 CP4구역'을 8158억 원에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파인디지털, 일정실업, 스타모빌리티 등도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차입금을 갚기 위해 보유 부동산을 시장에 내놨다.

한광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이 향후 영업현금흐름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채를 확대하고, 특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 자금을 의존하고 있다"며 "기업의 크레딧(신용) 측면에서 가장 좋지 않은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 '코로나19' 관련 2·3·4·5·8·9·10·12·18면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시중은행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업은행에 이어 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5% 최저금리 대출을 시작했다. 단 시중은행은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정했다.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소상공인 대출 창구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고이만 기자 photoean@

코로나 공포에... 1분기 글로벌 증시 '초토화'

다우 -23%... 공포지수 역대 최고
韓·日·유럽도 하락폭 20% 넘어
진원지 중국만 -10%로 비교적 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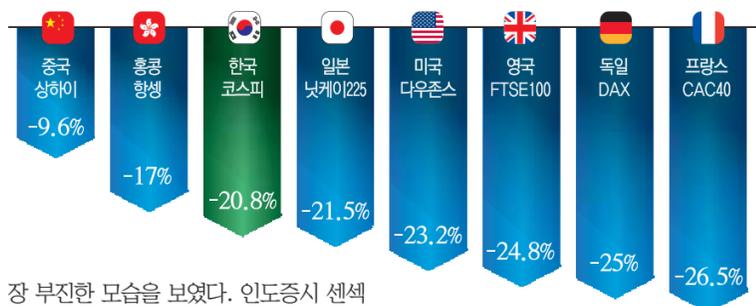
글로벌 증시가 올해 1분기 역대급의 폭락을 보였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서 주요 주가지수가 20% 이상 하락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하락폭을 나타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전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전 세계 경제활동이 멈추면서 투자자들의 공포감도 극대화했다. ▶관련기사 16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금융전문매체마켓워치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증시 주가를 종합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ACWI지수는 올해 1분기에 22% 가까이 폭락했다.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23% 폭락해 1987년 10월의 '블랙먼데이' 사태 이후 3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S&P 500지수는 20% 하락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보였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4% 하락했다.

아시아와 유럽 주요 증시도 코로나19가 초래한 혼란에 허덕였다. 일본증시 닛케이 225지수는 22% 하락으로 2008년 이후가

글로벌 주요 증시 1분기 하락폭 ※출처: 마켓워치



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인도증시 센섹스지수는 30% 이상 폭락해 1992년 경제위기 당시의 28%를 뛰어넘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전국 봉쇄령을 발동했다.

범유럽 증시 벤치마크인 스톡스유럽 600지수는 1분기에 23% 하락해 2002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증시는 25% 안팎으로 폭락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만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1분기에 약 10% 하락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절정에 달했을 때, 춘제(설날)로 연휴가 장기간 이어지고 지난달 전염병 확산이 억제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시

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분기 뉴욕증시의 변동성이 1930년대 대공황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포지수'로 유명한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 지수(VIX)는 지난달 16일 82.69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 21일의 80.74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WSJ는 연초만 해도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협약의 서명에 세계 경제와 시장이 완만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로 전 세계 경제활동이 거의 멈추면서 미국 역사상 최장기 강세장이 순식간에 끝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민주 70곳·통합 38곳 "우세"

'4·15 총선' D-13
경합우세 포함엔 132 vs 124~130
민주 "수도권 80석 이상 당선" 자신

4·15 총선이 눈앞인 가운데 각 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범(凡)보수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비해 비교적 많은 지역에서 우세를 점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상징성이 큰 수도권의 경우 민주당은 81곳을 우세 지역으로 꼽은 반면, 미래통합당은 21곳에서 우세하거나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봤다. ▶관련기사 6면

1일 각당의 총선 초반 판세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은 확실한 승리를 장담하는 '우세' 지역으로 △서울 16곳 △경기 23곳 △인천 2곳 △호남 23곳 △충청 4곳 △강원·제주 2곳을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 '경합우세' 지역(62개)을 포함하면 총 132개 지역구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망이다. 반면 통합당은 '우세' 지역(38개)과 '경합우세' 지역(49개) 등 총

124~130개 지역구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가장 많은 의석이 걸려 있는 수도권의 경우 전체 121개 의석 가운데 우세·경합우세 지역은 민주당이 81개, 통합당은 21개로 각각 파악했다. 우선 49개 의석이 걸린 서울에서는 강북·성북·은평·노원 등 이른바 '강북 벨트'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전망하고 있다. 통합당은 지난 선거에서 승리한 강남구 3개 지역을 우세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도 민주당은 비교적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자체 분석에서 열세 지역을 4곳만 꼽을 정도다. 수원, 용인, 고양, 부천, 남양주, 안양, 안산 등 3개 이상의 지역구가 있는 서울 외곽 벨트 지역에서 대부분 승리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민주당은 이정미 정의당 후보가 나선 연수읍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경합 또는 우세로 보고 있다. 통합당은 4곳을 우세, 9곳을 경합우세로 분류하며 지난 총선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현대차 3월 수출 26% 급감

해외시장 위축·공장 휴업 여파

지난달 국내 완성차 업계의 글로벌 판매가 전년 대비 약 15% 급감했다.

국내시장에서 개별소비세 인하와 신차 효과를 누린 반면, 해외시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공장 휴업 여파를 고스란히 받았다. 차 업계의 위기는 이달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일 완성차 5사가 발표한 3월 글로벌 판매는 59만7826대로 지난해 동기(70만2470대)보다 14.9% 감소했다.

쌍용차를 제외한 완성차 4사는 국내시장에서 개별소비세 인하 또는 신차 효과를 누리며 선방했지만, 해외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장 휴업에 직격탄을 맞았다.

3월 실적이 공장 휴업에 따른 판매 급감이라면 본격적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은 이달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3면에 계속

김준형 기자 junior@



· 사회적 거리두기 · 함께 나누기
· 서로 배려하기 · 바이러스 바로 알기

면세업계, 중소 협력사에 '상생 동아줄'

유통업계 망주였던 면세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매출이 반토막 난 데 이어 3월 매출은 그보다 더 급감해 '생존 위기'에 놓인 가운데서도 중소 협력사를 위한 상생 지원책을 내나 눈길을 끈다. 중소 협력사에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협력사가 고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 등이 골자다.

롯데면세점

대금지급 횟수 월 2회로 늘려 마케팅 활동·매장환경 개선 지원

신세계면세점

판매 수수료율 5%까지 인하 30억 투입 임금격차 해소 확대

신라면세점

펀드 운영 대출이자 감면 혜택 직원 8000명 고용 안정화 총력

롯데면세점은 국내 중소 협력사에 대금지급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지급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혜택은 코로나19로 영업 환경이 악화해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 400여 개 업체에 돌아갈 예정이다. 물품대금은 월 500억 원 규모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총 1500억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중소 협력사를 위한 금융 지원 대책도 확대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7월 중소 협력사 저금리 금융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출연했다. 기존에는 롯데면세점과 직접 거래하는 1차 거래선이 대상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소 협력사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2차 거래선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롯데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국산 중소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35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지원금은 영업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별 마케팅 활동 강화 및 브랜드 매장 환경 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본사 임직원 '착한 마스크 캠페인' 자원봉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하는 '착한 마스크 캠페인'이 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에서 열렸다. 이투데이미디어 김상우(왼쪽 첫 번째) 부회장, 김상철(두 번째) 대표이사 등 임직원 20여 명이 이날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착한 마스크 캠페인은 공적 마스크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매 기회를 양보하고 마스크를 기부하는 행사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면 마스크와 휴대용 손 소독제를 증정한다. 캠페인은 3일 오후 2시 노량진역, 사당역, 장승배기역, 이수역 등에서 계속된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하는 '착한 마스크 캠페인'이 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에서 열렸다. 이투데이미디어 김상우(왼쪽 첫 번째) 부회장, 김상철(두 번째) 대표이사 등 임직원 20여 명이 이날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착한 마스크 캠페인은 공적 마스크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매 기회를 양보하고 마스크를 기부하는 행사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면 마스크와 휴대용 손 소독제를 증정한다. 캠페인은 3일 오후 2시 노량진역, 사당역, 장승배기역, 이수역 등에서 계속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면세업계 전체가 힘든 상황이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재계의 노력에 함께하기 위해 중소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사 지원에 나선다. 먼저 협력사와 '고용 안정 협의회'를 구성해 인력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신세계면세점은 직영 585명의 고용 안정과 더불어 협력사 및 면세점 판매직원 7000여 명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동반성장투자자재원 30억 원을 확보해 개업통상, 유니앤코 등 협력사 원 임금 격차 해소 지원을 확대한다.

또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결제대금 먼저 지급하는 '조기 지불제도' 운영을 월 2~3회로 늘려 협력사의 자금난 해소에 앞장선다. 더불어 국내 중소기업 30여 개를 선정해 판매수수료율도 5%까지 인하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영식 신세계에프 대표는 "그동안 함

께 성장해온 협력사와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도 중소 협력업체 고용 안정화, 대금지급 주기 우선 지급 등을 포함한 상생 방안을 내놴다. 신라면세점은 판매직원 및 도급·과연업체 직원 총 8000명의 고용 안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동반성장 협력대출 펀드'를 운영해 협력업체 대출이자를 감면해 주는 등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박미선 기자 only@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제3차 위기 관리대책회의에서 통신·방송 분야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지원 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신 분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통신 단말기 유통점(2만6000개, 6만여 명)과 중소 통신공사업체 등에 대해 3월 5일부터 1차로 운영자금, 공사비 조기지급 등을 긴급 지원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가계 소비심리 위축, 사회적 거리

통신 단말기 유통·공사업체에 1055억 추가 지원

과기부-이통3사, 운영자금·임대료 혜택 확대... 채권 이자상환 유예기간 연장

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이 약화됨에 따라 통신·방송서비스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을 돕는 필수재로서 기능하고 있어 통신·방송 서비스 활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단말기 외상 구입(채권)에 대한 이자상환 유예기간 연장 등을 통해 105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그 결과 통신 단말기 유통점, 중소 통신공사업체 등에는 약 4200억 원(누적)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통신·방송 요금과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한

다. 확진자 경유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겪은 3만 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통신요금은 1개월 감면(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할 계획이며, 방송요금 역시 각 유료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1개월 이상 감면기로 했다.

또한 생계형 무선국(소형 선박 등)을 운영하는 영세 시설자와 심각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항공사 등에 대해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재훈 기자 yes@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정당과 후보자들은 오늘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두 달 남게 코로나바이러스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염병 방역과 치료를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국가적 위기를 국민적 단결과 협력으로 극복해왔습니다. 이번 사태 역시 슬기롭게 이겨낼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4·19 혁명이 있는 지 60년이 되는 해에 실시되는 뜻 깊은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관리라는 자세로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투표소의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유권자는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거소투표를 하면 됩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지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를 위해서는 특별 사전투표를 설치하여 투표권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서는 발열 체크를 하고, 이상이 있는 유권자를 위해서는 임시 기표소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깨어있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 희망과 화합의 새로운 민주주의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투철한 책임감으로 이번 선거에 반드시 참여하여 국민의 뜻을 모으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보여주시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3월 수출 전년比 0.2% 감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지난달 수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0.2%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정부는 급락 우려와 달리 선방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3월 선방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 이뤄진 계약이 수출에 반영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 악화 공포는 이달부터가 진짜라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수출액이 469억 1000만 달러를 기록, 작년 같은 달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수입은 418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줄었다. 무역수지는 50억4000만 달러로 9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수출은 2018년 12월을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다 2월 증가세 전환에 성공했으나 코로나19 탓에 한 달 만에 다시 고꾸라졌다.

다만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이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으나 지난해 3월 수출액인 470억 달러에 근접하며 1억 달러 차이로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수출 469억 달러·수입 418억 달러 무역수지 98개월 연속 흑자 이어가

정부 “예상 외 선방” 평가했지만 전문가 “4월부터 실적악화” 경고

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한국 수출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지난해 3월 수준에 근접하며 선전했다”며 “2월 중국, 3월 미국·EU 등 주요 공장 가동 중단에도 한국 기업의 생산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등 글로벌 공급기로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위상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출 물량은 13.1% 급등하며 1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요 20개 품목 중 14개의 수출 물량이 증가했고, 특히 반도체 물량은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했다.

또한 하루 평균 수출은 전월의 -11.9%에 이어 -6.4%로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감소폭이 완화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3월 대(對)중국 수출은 현지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졌던 2월 초 하루 평균 수출이 3억6000만 달러로 급감했지만 점차 확산세가 둔화해 3월에는 4억5000만 달러로 1월 수준을 회복했다.

특히 지난달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미국과 유럽연합(EU)로의 수출 증가율은 각각 17.3%와 10.0%를 기록하며 플러스를 유지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실적 붕괴는 4월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3월 수출 성적을 선방으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지난달 수출 물량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에 계약된 물량이 대부분으로 진짜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악화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앞으로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이들 지역의 수요 감소는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의 수출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성적은 4~5월이 최악일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19가 여름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수출이) 힘을 쓰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신차 효과·할인으로 내수 지켰지만 보호무역·소비위축 ‘보릿고개’ 예고

현대차 3월 수출 26% 급감

▶1면서 계속

먼저 현대자동차 글로벌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9% 감소했다. 국내 판매가 신행 그랜저 효과에 힘입어 전년 대비 3% 증가한 것과 달리, 해외 판매는 무려 26.2%나 줄었다.

국내 판매는 그랜저IG 부분변경 모델이 1만6600대가 팔리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그랜저 판매는 1만7247대를 기록했던 2016년 12월 이래 3년 3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해외시장에서는 지난해 동기보다 26.2% 줄어든 23만6323대에 머물렀다. 유럽과 미국 공장 휴업 여파가 고스란히 이어졌다.

기아차는 신차 효과를 앞세워 국내에서 선방했다. 해외에서도 상대적으로 실적 내림세가 적었다.

국내에서는 부품 수급 차질과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5.3% 증가한 5만1008대를 기록했다. 신행 K5와 쏘렌토 등 신차 효과 덕이다. 기아차가 국내 판매 5만 대를 돌파한 것은 2018년 4월 이후 23개월 만이다.

이와 달리 해외 판매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한 17만5952대에 머물렀다. 현대차보다 상대적으로 해외 판매 급락세가 적었던 이유는 기저효과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초부터 기아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차종 노후화로 부진을 겪기 시작했다.

한국지엠도 내수를 끌어올렸으나 수출에 발목을 잡혔다.

지난달 국내 판매는 전년 대비 39.6% 증가한 8965대에 달했다. 반면 수출은 20% 넘게 급락한 2만8953대에 머물렀다.

국내 판매 증가는 2월 고객 인도가 시작된 트레이드인플레이저 덕이다. 3월 한 달간 총 3187대가 판매되며 국내 판매를 견인했다.

반면 20.8%나 줄어든 수출은 상대적으로 해외시장 소비심리 위축 여파를 일찌감치 받기 시작한 탓이다.

국내 완성차 5사 글로벌 판매 추이 (단위: 대, 3월 기준)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내수	7만2189 (3.0%)	5만1008 (15.3%)	8965 (39.6%)	1만2012 (83.7%)	6860 (-37.5%)
해외	23만6323 (-26.2%)	17만5952 (-11.2%)	2만8953 (-20.8%)	3088 (-57.4%)	2485 (-4.6%)
총계	30만8503 (-20.9%)	22만6960 (-6.4%)	3만7918 (-11.8%)	1만5100 (9.5%)	9345 (-29.0%)

국내에서 신차 효과를 누린 대신, 해외에서 부진을 겪은 것은 르노삼성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달 국내에서도 출시된 수출 전략차종 XM3가 국내 판매 1만2012대를 기록해 전년 대비 83.7%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 효과 모델은 아직 수출에 나서기 전이다. 그 탓에 지난달 르노삼성의 수출은 3088대에 머물렀다.

쌍용차는 완성차 5사 가운데 유일하게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했다.

지난달 국내에서 6860대(-37.5%)를, 수출은 2485대(-4.6%) 판매하는 데 그쳤다. 전체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2% 감소한 수치다.

내수에서 신차가 없는 데다 수출길 역시 유럽에 집중되다 보니 코로나19 여파에 판매가 급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시장 위기는 이달 시작될 전망이지 배적이다. 3월까지의 부진이 공장 휴업 탓이었다면 4월부터는 ‘소비심리 위축’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중국과 유럽, 미국 등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기업 지원과 양적완화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3월 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및 일본차에 유리한 미국 연비규제 강화를 철폐했다. 때문에 연비가 불리한 미국차들은 당분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 부진은 부품사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조사에 따르면 일부 부품사는 5월부터 10일 이상 공장 휴업, 임금 지급 유예 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꿈은 작은 첫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DB가 당신의 꿈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꿈을 펼치라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이의신청 절차로 형평성 보완

내주 소득기준·산정방식 확정... 건보료에 재산·금융정보 연계 전문가 “모든 국민 지급 후 실소득-기준소득 차액 세금 환수”

정부가 역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지급(하위 70%) 방침을 유지한다. 대신 소득기준 경계선에 대해선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선은 그대로 간다”며 “기준선을 살짝 넘어선 가구에 대해선 이의신청 같은 방법으로 최근 가계 상황이 악화한 것이 소명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

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내주 중 구체적인 소득기준 및 소득 산정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에 재산·금융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에는 재산이 반영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돼서다.

단 소득기준이 마련돼도 역진성이란 문제가 남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 대부분의 무기여 복지급여에는 역진

성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규정이 있다.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소득인정액)을 정해놓고, 기준과 실소득 간 차액만 지급하는 식이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기준의 경계에 있는 수급자가 급여를 받아도 총소득이 비수급자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감액규정이 없는 정액 지급 방식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4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800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이 800만 원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지만, 801만 원인 가구는 한 푼도 못 받는 식이다. 이 때문에 기준의 경계선에 있는 가구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여부

에 따라 총소득이 역전될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다수의 재난 직간접 피해자도 소외될 수 있다”며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 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뉘는 문턱 효과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 일정액을 선지급하고,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에 기준 소득과 실소득 간 차액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경우 환수에 대한 불만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득 역전 방지와 더 정밀한 소득·재산 파악이 가능하다.

단 정부는 현재까지 선별지급 방식을 고수 중이다. 내주 소득기준 및 소득 산정방

식을 확정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대상자를 추릴 계획이다. 대신 기준 경계선에 있는 가구 중 최근 가계상황이 악화한 경우에 대해선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에서 건보료 등으로 파악하는 소득·재산은 과거 시점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자는 현재 시점의 소득·재산을 입증하면 된다. 신청자가 제출한 소득·재산이 소득기준보다 적을 때에는 추가로 지원 대상이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의신청 요건과 인정 방법 등은 구체화해나가는 중”이라며 “대상자 선정 방법과 함께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대기업 면세점도 임대료 20% 감면

공항 소상공인 감면을 25%→50% 영화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면제

정부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임대료도 6개월 동안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3개월 납부유예를 해줬지만,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영화관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하고 통신·방송요금 1개월 감면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III)’ (관광, 영화, 통신·방송)을 발표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급감, 여행·외출 자제와 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산업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면세점·영화관·휴대폰 판매점 등 오프라인 매출 위주의 관광·레저·통신업종은 고객·매출이 매우 감소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정부는 관광·영화·통신·방송 등 경영난이 심각하게 가중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긴급지원 방안을 강구해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면세점 등 공항상업시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한다. 대·중견기업 임대료도 신규로 20% 감면한다. 그동안 대·중견기업은 3개월 납부유예만 지원했다. 정부는 공항 이용 여객수가 전년 대비 60% 도달 시까지 최대 6개월 한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임대료를 감면해주면서 산하매장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상생 협력을 주문했다. 공항공사의 정부배당금 납부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감염병 경보 해제 시까지 호텔등급 평가를 유예해 업계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 약 350개 업체가 심사 대상이며 심사비용은 약 8억 원이 든다.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도 50% 감면해주고 지자체 소유일 경우 임대료 감면도 독려한다.

3월 기준 영화관 월 관객 수가 전년 대비 87.7%, 매출액이 88.2% 급감하면서 영화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영화관의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영화관 입장료 3%)을 2월부터 소급 적용해 한시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통신·방송 서비스 활용에 대한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소 단말기 유통점(2만6000개, 6만여명), 공사업체(630여 개) 등을 대상으로 4200억 원 규모의 긴급지원을 확대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불화폴리이미드 공장인 경북 구미시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을 방문, 생산된 불화폴리이미드 필름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산단 찾은 문 대통령 “기업 반드시 지키겠다”

“긴급자금 적기에 충분히 지원... 폐업 없도록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 산업단지인 구미산업단지를 찾아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오롱 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이 코로나19 피해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산업, 민생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중소기업까지 긴급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며 “필요한 업체에 적기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업인들에게 “구미산단이 보여준 연대와 협력 힘은 코로나19 극복의 뛰어난 모범사례가 아닐 수 없

다. 전국으로 확산해 많은 기업과 국민께 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 지역인 TK 지역을 방문한 것은 지역 민심을 위로하는 동시에, 정부의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힘으로써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구미산단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위기 극복 모델’로 부각하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이는 현장 방문 슬로건을 ‘한국 경제의 저력, 위기 극복의 DNA’로 정한 데서도 읽을 수 있다. 대구에서 구미산단으로 출·퇴근하는 인원은 5만 명 수준으로, 산단 내 다수 확진자가 발생해 가동 중단 및 수출 지연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구미산단이 보여준 연대와 협력의 힘은 코로나19 극복의 뛰어난 모범 사례가 아닐 수 없다”며 “여러분의 연대와 협력의 힘에 힘입어 경북도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일정의 상당 부분을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 소화한 점은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위기에 처했을 때 규제 3대 품목 중 하나인 불화폴리이미드 개발과 공급에 기여한 기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있기 전부터 선제적인 노력으로 일본의 수입을 대체했다고 하니 자랑스롭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일환 기자 whan@

무급 휴직·특고 등 취약계층 26만명에 최대 100만원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11만8000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14만2000명에게 이달부터 내달까지 최대 100만 원의 고용·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 총 예산은 국비 2000억 원과 지방비 346억 원 등 총 2346억 원이다.

이를 통해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무급휴직자(총 11만8000명)에게 이달부터 2개월간 월 최대 50만 원을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인·10인·50인 또는 100인 미만 사업장(지자체별 기준 설정)에서 2월 23일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들어간 노동자다.

해당 사업주는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신청서와 함께 무급휴직 확인서(휴직일수, 근로시간 등)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가 요건 심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신청도 가능하다.

무급휴직자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총 14만2000명)에게도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자가 지급 대상이며 저소득자가 우선 지원을 받는다.

신청 희망자는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해외유입·의료시설 집단감염... 확진자 이틀째 100명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0명을 웃돌았다. 해외유입과 의료·요양기관 내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된 탓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는 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9887명으로 전날보다 101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 중 83.5%는 집단감염 관련 사례로 확인됐다. 지난 2주간 확진자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해외유입

(35.0%)과 병원·요양원 집단감염(34.0%)이 전체의 70%에 육박했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에선 확진자가 13명으로 6명 늘었으며,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선 입원환자 1명이 확진됐다. 서울아산병원 확진자는 지난달 25~26일 의정부성모병원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과 보호자는 자가격리 중이며, 입원환자 43명에 대해선 동일

집단 격리(코호트) 예정이다.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누적 41명), 대구 서구 한사방요양병원(121명) 등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증가했다.

대구 의료기관 집단감염의 상당수는 신천지를 통한 2·3차 전파 사례로 추정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의료진인) 신천지 신도의 대부분은 간호인력이나 다른 의료종사자”라며 “예배를 통해서(병원까지) 전파가 됐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1일 0시 기준,) : 31일 0시 대비

총 환자	격리해제	격리중	사망
9,887명 (+101)	5,567명 (+159)	4,155명 (-61)	165명 (+3)

을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유입은 누적 560명으로 36명 늘었다. 유입국가별로는 중국이 17명, 중국 외 아시아가 64명, 유럽은 298명, 미주는 178명이었다. 주차별(의사환자 신고일자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주차 321명, 14주차 95명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골목상권 코로나 직격탄... “의류 85%·가구 80% 매출 뚝”

한경연, 중소상인 실태조사

지난해 동기 비해 43% 급감
“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 필요
감세·납부기한 연장도 절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업 부진으로 골목상권의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여운조사기관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4개 주요 골목상권 업종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경기현황 및 내년도 최저임금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의류점업 등 24개 골목상권 업종의 올해 2~3월 중 평균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8% 줄어들었다고 1일 밝혔다. 평균 순이익도 44.8% 감소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24개 중 22개 업종에서 매출 감소를 예상했다. 그중에서도 △의류점(-85%) △가구점(-80%) △금은방(-70%) 등의 업종이 극심한 부진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택배(5%)는 코로나19로 대면거래보다 온라인상거래가 늘어나 매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순이익에서도 △유통(-95%) △의류점(-85%) △가구점(-80%) 등 24개 중 22개 업종의 부진이 예상된다.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업종은 하나도 없었다.

골목상권 협회들은 매출과 순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경기위축 및 방문객·이용객 감소에 따른 판매부진’(9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최저임금·4대 보험료 등 인건비 상승(50%) △임대료 상승(20%) △동일업종 소상공인 간 경쟁 심화(10%) 등도 지적했다.

협회들은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65.6%)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밖에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46.9%)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21.9%) △산입범위 확대(수당·현물급여 등 포함, 15.6%) 등 순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골목상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세금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59.4%) △각종 지원책 신청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지원 여부 결정(53.1%) △대출부담 및 대출조건 완화(46.9%) △피해 사업장 직접지원 확대(15.6%) 등을 꼽았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83.9%가 동결 또는 인하를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동결이 58.1%로 많았고, 인하는 25.8%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영세·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담보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책 강화 및 신속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 역시 인상을 자제함으로써 골목상권 타격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한은, 차액결제용 적격담보증권비율 20%P 인하

10.1조 유동성 공급 효과 기대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2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 자금은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담보증권 대상범위도 최근 확대하기로 결정한 대출용 담보증권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종목으로 맞추기로 했다.

1일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급결제 부문 대응 방안으로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제공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2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의결 후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이란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뤄지는 소액

지급이체의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한은에 납입하는 담보증권을 말한다. 소액결제에는 통상 고객 간 지급이체가 이뤄진 다음날 11시 한은 금융망을 통해 한은에 개설된 금융기관 당좌계좌에서 차액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기준(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 맞춰 매년 10%포인트씩 동 비율을 인상기로 했던 애초 일정도 순차적으로 유예했다. 애초엔 8월 1일부터 80%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이 제도는 1997년 9월 1일 10%를 시작으로 처음 도입된 이래 꾸준히 상승해왔다. 작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70%를 적용하고 있었다.

적격 담보증권 대상증권도 한시적으로 농금채와 수금채, 일반은행채와 한전채 등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애초엔 국채와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정부보증채, 산금채, 중금채, 수금

채,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이었다.

다만, 이번에 확대된 대상증권은 전산시스템 변경 및 테스트 소요기간을 고려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효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다. 이는 대출용 담보증권과 RP 매입 시 확대됐던 종목이 4월부터 시행되는 것보다 한 달가량 늦어지는 것이다.

홍철 한은 결제정책팀장은 “지난달 30일 기준 금융기관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금액은 35조5000억 원이었다. 이번 조치로 25조4000억 원으로 줄어 10조 1000억 원가량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 금액만큼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시중 유동성 공급을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무제한 RP 매입을 실시기로 한 바 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코스피 3.9% 급락 마감 코스피가 1일 3.9% 급락하며 1680대로 밀려났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9.18포인트(3.94%) 내린 1685.46에,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7.23포인트(3.03%) 내린 551.84로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급식 중단에 농가 울상... 농식품부 “판매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개학 연기로 급식이 전면 중단되면서 농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 급식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피해 물량을 전량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온라인 개학과 등교 중지 등에 따른 급식 중단에 대응해 온라인 판매 확대와 대체 판로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긴급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에도 개학 연기에 따라 592톤의 친환경 농산물 할인 판매를 지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학교 급식이 중단돼 농가의 판로가 막히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친환경 농가의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어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며 “전국 학교 급식이 1개월 추가 중단된다면 학교 급식 공급용 친환경농산물 812톤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매주 공급되는

약 2000톤의 친환경농산물 중 저장성이 부족한 품목 등 피해 가능성이 있는 물량이 약 203톤씩 발생 가능하다고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판로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농산물 폐기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개월간 피해 예상 물량 전량 판매를 지원한다.

먼저 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보거나 판로가 막힌 친환경 인증 농가는 관할 소재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피해 물량과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20%)를 확대 추진하고, 공공급식 등 대체 판로에 대한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 지원(20%)으로 600톤의 피해 물량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농협 등에서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을 공공기관 등 급식용으로 공급을 유도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퀴터백}

※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충분히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에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타파트너 매매수수료 (주식) 0.15%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율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차 테스트베드 통과
 ※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콜센터 1588-8245

정태호-오신환 세번째 대결 '2030 票心' 이 승부 가른다

총선 현장

관악을

관악구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이다. 가족 단위 주거지도 많지만 신림동을 중심으로 청년층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관악구청 통계정보에 따르면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 인구 비율은 30.6%이며, 2030을 아우르면 40%가 훌쩍 넘는 다.

저렴한 원룸이 대거 몰려 있다는 게 최대 이유로 꼽힌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뒤 대학동, 난곡동, 미성동 등은 원룸촌으로 탈바꿈, 저렴한 월세 덕분에 직장인과 공시생이 몰렸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고 인프라가 열악한 낙후 지역이란 평가를 받는다. 자연스레 4·15 총선에서 청년 관련 공약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관악을은 특히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13대 총선부터 전통적인 진보진영 텃밭이었던 관악을은 2015년 재보궐선거와 2016년 20대 총선에선 보수 정당에 기회를 줬다. 이곳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신환 미래통합당 후보가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친다. 21대 총선도 예측불허의 판세 속에 두 후보는 청년 공약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과 일자리 수석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신환 미래통합당 후보

젊은층 인구비율 40% 훌쩍 넘어 진보 텃밭...최근 두 번 뒤통수 '공약 재탕에 현실 외면' 피로감

비서관 출신인 정 후보는 관악구를 대한민국 실리큰 밸리로 만들겠다는 창업·벤처 밸리 조성 공약을 선보였다. 또 난곡동 전철을 조기 착공해 교통 소외지역을 극복하고 쇠퇴한 신림역 상권을 서울 중심 상권으로 부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들은 현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재정적 지원 현실화는 야당보다 유리하다고 정 후보는 자신했다.

관악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순수 토박이' 오 후보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원내대표에 올라 각 정당 이견을 조율하는 큰 역할을 맡았다. 오 후보는 과거

관악이 27년 동안 정체된 이유는 민주당 텃밭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조국 사태'를 언급, 정의와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고, 대입 정시모집 비율을 50%로 대폭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청년참여형 공정채용 감시·감독기구를 구성하고, 고위직 공직자의 부정채용 청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관악을의 주된 민심은 청년 공약에 관심을 두면서도 정작 공약이 현실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동 주민 김모(남, 31) 씨는 "현 제도가 청년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위에서 보기에 '그들은 그럴 것이다' 판단이 깔린 것 같다"며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대학동 거주 대학원생이라는 이모(남, 31) 씨는 "일자리 문제보다 주거 문제는 정책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는 위에서 생각하는 것과 청년이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에서 청년 주거는 '단순 임시 거주 지역'으로 생각하고 세어하우스 등 제도를 내놓고 있다. 사실 우리 청년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를 찾고 싶다"고 꼬집었다.

김하니 기자 honey@
유혜림 기자 wiseforest@



공식 선거운동 사이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종로구 인의동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직원이 종로구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장경태-이혜훈 '박빙 대결' ... 민병두 '추격'

총선 현장

동대문을

#1. 오전 7시 40분, 답십리역 4번 출구 역사 내 장경태 민주당 후보의 이름이 우렁차게 울려 퍼진다. 민주당 시의원들을 포함해 파란색 점퍼를 입은 선거운동원과 장 후보는 마스크를 끼느라 표정을 숨긴 출구 길 지역민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인다. 빠른 걸음을 재촉하던 20대 남성이 건넌방은 명함과 장 후보의 얼굴을 번갈아 훑듯 살펴보다 관심을 기울인다.

#2. 오전 10시 20분, 장안2동 해장국집, 꽃집, 약국, 세탁소, 부동산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민병두 무소속 후보다. 그는 지역구 현역답게 "저예요"라며 인사를 건넨다. "어떻게 이번엔 9번으로 나오셨어"란 말에 민 후보는 청년우선공천을 설명하며 "나이가 많아서 안 해줬어요. 나이 많은 게 죄는 아닌데 말예요"라고 토로했다. 그는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덧붙이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혜훈 미래통합당 후보 민병두 무소속 후보

"힘들게 됐어요. 너무 불쌍하잖아, 더불어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했다.

#3. 오후 1시 30분, 벚꽃이 흩날리기 시작하는 구민회관 맞은편 중앙천 뚝방길. 이혜훈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유승민 의원은 "벚꽃비가 내리네요"라며 다정한 대화를 나눴다. 한 60대 남성이 "내가 잘 압니다. 이혜훈 후보,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잖아"라고 하자, 유 의원은 "맞습니다, 최고의 경제 전문가입니다. 우리 이혜훈 후보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응했다.

동대문을 지역구 첫 여론조사가 발표된 바로 다음 날인 1일 서울 동대문을 각 선거캠프엔 지각변동을 예고한 결과에 저마다 분위기가 고조됐다. 오차범위 내 박빙이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30일

까지 서울 동대문을 선거구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장경태 민주당 후보가 35.7%, 이혜훈 통합당 후보가 32.2%를 기록했다. 이는 3.5%p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4.4%p) 내 접전이다. 이어 민병두 무소속 후보는 17.7%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이주혜 기자 winjh@

청년, 정치를 말하다

장철민 대전동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청년 정치인 인재풀 넓혀야"

홍영표 보좌관으로 정계 입문
"뛰어난 정무감각 지녔다" 평가
'사병보급 인상' 청년법안 추진



30대 청년 정치인으로 대전 동구에서 총선에 출마한 장철민(사진) 후보는 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실상 공천 막바지에 가면 이겨야 하니 승리 가능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후보를 공천해야 하는 각 정당의 '현실론'을 인정하면서도, 청년 정치인들의 경쟁력이 제대로 평가되기 어려운 정치지형에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1983년생인 장 후보는 올해로 만 36세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의 보좌관으로 2012년부터 7년간 일했다.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핵심적인 업무를 맡으며 단련된 내공이 깊은 만큼 어지간한 국회의원보다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 선거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도 '청년 정치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장 후보는 말했다. 그는 "기존 정치에 대한 혐오가 정말 심한 상태여서,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기대와 바람을 가진 유권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유권자들의 바람과 사회적 분위기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장 후보는 덧붙였다. 현재의 '제도적 틀' 안에서서는 여야가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청

년정치가 활발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청년 정치인의 '인재풀(Pool)'을 일찍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에 앞서 기초의원들의 경우 30~40%, 광역의원들의 경우 20~30%는 무조건 청년 정치인을 공천하도록 하는 등의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장 후보는 선거 공천 외에 당내 시스템의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주말이면 텅텅 비어 있는 국회의원회관 등을 활용해 '청년 정치인'들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제안이다. 장 후보는 "토요일마다 당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을 모아 의원회관에서 강연·스터디·간담회 등을 열고, 이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을 당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입성할 경우 가장 먼저 발의할 예정인 법안으로는 20대 청년과 연관된 '사병 보급 인상'을 꼽았다. 장 후보는 "약 10년간의 기간에 걸쳐서 사병 보급을 최저임금에 맞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박대성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청년 기업가의 혁신 뒷받침"

페북코리아 대외정책 부사장
"반시장적 정책에 IT 기업 위축
규제 혁신, 국가 경쟁력 키울것"



"자유로운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야 청년들도 도전하고 뛰어날 수 있는 판도 커집니다."

박대성(사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는 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정치 입문 계기를 밝혔다. 글로벌 기업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를 혁신해 세계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포부다.

이번 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총 39명) 중에서 2030 청년 후보는 단 5명에 불과하다. 박 후보는 청년 경제인 출신으로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 부사장 경험을 인정받았다. 그는 "페이스북에 근무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무한 경쟁을 현장에서 경험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는 세계 각국 정부가 벌인 과감한 규제 개혁을 주목했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정부에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다는 설명이다. 박 후보는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시장의 생존 전략을 살펴보니 기업만 잘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다"며 "정부가 규제 혁신에 나서고 미래산업

발전을 지원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규제는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렀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박 후보는 "오늘날 글로벌 IT 기업들은 디지털 화폐, 가상 현실과 같은 신기술을 바탕으로 치열한 혁신 경쟁을 벌이는데 우리는 이를 규제 대상으로 인식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시장적인 정부 정책이 이어지고, 청년 IT 기업이 위축되는 폐해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는 "특히 청년 IT 기업가들의 스타트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기업인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하고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고 설명했다. 시장 생태계가 역동적일수록 청년들도 도전할 수 있는 판도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고,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다”

‘봄’의 어원인 ‘보다(見)’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보는 건 희망입니다.
 봄을 뜻하는 영어 ‘Spring’ 또한
 ‘샘솟다, 싹트다, 용수철’의 뜻이자 자연의 원리입니다.

위대한 한국인!
 우리는 모두 위기엔 뭉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민족의 원형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혼한 사재기도 없는 데다 최고의 의료진, 헌신적인 자원봉사자,
 그리고 조선시대 의병을 연상케 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엄숙한 희생과 눈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사라진 'V자 반등론'... "세계경제 그린다"

S&P "올 글로벌 성장률 0.4% 1982년 경제붕괴 이후 최저" 전문가 "급격한 침체·반등 후 정체... '나이키 곡선' 그릴 것"

"V자형도, U자형도 있어라. 세계 경제는 나이키 로고처럼 반등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V자형이나 U자형으로 반등할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대신 아주 급격한 침체와 반등을 거친 후 정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른바 '나이키형 반등(Nike swoosh)'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안 해치어스 이코노미스트 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을 종전의 마이너스(-) 24%에서 무려 -34%로 하향 조정했다. 실업률도 올해 중간에 15%로 치솟을 것

으로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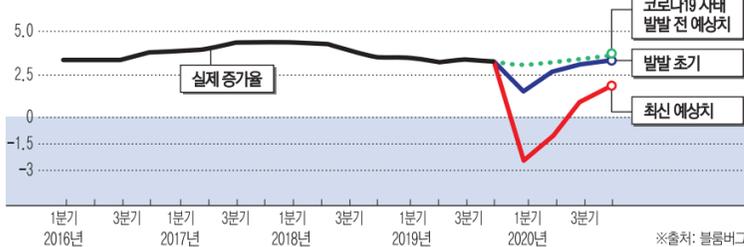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면서 대량 실직을 초래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는 2분기에 지금까지의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3분기에는 미국 성장률이 19%로 반등하는 등 V자형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전문가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에도 경제가 탄력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줄어들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경제 난기류와 주요 국가의 봉쇄 정책 등으로

글로벌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CNBC방송은 "S&P가 제시한 전망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라며 "이는 1929~1933년 대공황 이후 최악이었던 1982년(0.43%) 이후로는 이런 수치를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S&P는 미국과 유럽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1.3%와 -2.0%로 예상하고, 중국의 성장률은 3%로 작년의 절반 수준

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13억 인구에 대해 21일간의 봉쇄령을 내린 인도의 성장률 전망은 -3.5%로 훨씬 암울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2분기 말까지 코로나19가 사라질지 확실하지 않다"며 "여름까지 지속되면 모든 경제적 충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디스에널리틱스의마크 잔디 수석이

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가 V자형이나 U자형의 회복이 아닌 스포츠 용품업체 나이키의 '스우시(Swoosh)' 로고와 같은 형태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최대 -25%로 추락하고 3분기에는 15%로 강하게 반등했다가 4분기에 기본적으로 비틀거리며 정체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점쳤다.

블룸버그는 많은 기업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하느냐에 글로벌 경기 회복이 달렸다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달 중순 전 세계에서 2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국적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미국 가계의 4분의 1이 이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라며 "미국인의 40%는 돈을 벌지 못하면 400달러의 돌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마스크 써야 나갈 수 있다" 쿠바 아바나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할아버지가 손녀로 보이는 어린아이에게 천으로 만든 마스크를 단단히 씌워주고 있다.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등 중남미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이동제한령을 내리는 나라가 속출하고 있다. 쿠바 당국은 이날부터 외부에선 무조건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했다. 의료진에게만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던 유럽과 미국 등 서구권에서도 뒤늦게 일반인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아바나/AP연합뉴스

중 제조업 '서프라이즈'... "숫자 착시"

PMI 급반등 3년 만에 최고... 정부 "안도 이르다" 경계

중국 제조업 체감경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정부와 민간 집계 모두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 제조업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여전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3월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로 사상 최저치였던 전월의 35.7에서 크게 반등했다. 지난달 공식 PMI는 2017년 9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글로벌 리서치업체 IHS마킷이 1일 발표한 3월 차이신 중국 제조업 PMI도 50.1로, 사상 최저치였던 2월의 40.3에서 오르고 시장 전망인 45.5를 웃돌았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경기확장과 위축이 갈린다. 또 국가통계국 PMI는 대기업과 국영기업 상황을, 차이신 지표는 중소기업과 민간기업 현실을 각각 더 많이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이번 지표는 지난달 중국 제조업 전반이 다시 성장세를 회복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 국가통계국과 차이신 모두 제조업의 V자형 회복 인식이 현 시점에서는 성급하다며 선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 국가통계국은 성명에서 "PMI가 개선됐지만, 이것이

차이신 중국 제조업 PMI 추이



기업 생산과 경영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치가 개선됐음에도 그 의미가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차이신도 "기업들의 자신감이 다소 개선되고 생산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수요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다. 설문조사 대상 업체 중 많은 곳이 코로나19로 인해 수주가 지연되거나 취소됐으며 세계 각국이 봉쇄에 나서면서 신규 수출주문도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지이신문은 2월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체감경기가 사상 최악이었기 때문에 그 반동으로 지난달 수치가 실제보다 더 크게 상승한 면이 있다며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으로 확산해 해외 수요도 사라지고 있어 중국 제조업의 V자 회복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中이 책임져!"... 美, 코로나 피해訴 봇물

"중국 초동 대응 늦어 팬데믹 촉발"... 기업·개인, 거액 배상 소송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견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미국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개인과 기업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건강 피해에 대해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와 네바다주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초동 대응 지연이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시작됐다. 현지 위생건강위원회는 작년 12월 12일 코로나19 발병을 처음 확인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정보를

접한 것은 그로부터 19일이 지난 12월 말이었다.

당시 중국은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감염은 없다"고 했고,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한 해산물 시장은 올해 1월 1일이 돼야 폐쇄되는 등 초기 대응은 확실히 더뎠다.

그러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중국 지도부는 2월 초 "대응 부족을 조속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초동 대응의 부실을 인정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같은 달 후베이성과 우한시 공산당 서기를 경질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중국의 대응은 WHO 현장 국제보건규칙의 통보 의무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당 규칙은 공중 보건에 대한 비상사태가 우려되는 사항을 WHO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24시간 이내라고 명시해 신속한 대응을 요구

하고 있다. 신고 후에도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문은 중국의 배상 책임에 대해 유엔 국제법위원회(ILC)가 법전 편찬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관습법 위배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ILC는 2001년에 채택된 조문 초안에서 "책임 있는 국가는 국제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완전한 배상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지방 정부의 위법 행위도 국가에 배상 책임이 생긴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의 배상 가능성은 미지수다. 와세다대학의 반자이 히로유키 국제법 교수는 "원인과 피해의 인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은 어렵다"며 "국제 보건 규칙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해도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한계"라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배당 취소·자사주 매입 중단" 발표에 HSBC·스탠다드차타드, 주가 우수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은행권에도 미치고 있다. 영국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비해 은행들에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금지령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

1일 홍콩증시에서 HSBC홀딩스와 스탠다드차타드(SC)의 주가는 일제히 큰 폭으로 주저앉았다. HSBC는 9%, SC는 7% 가까이 떨어졌다. 이날 배당 지급을 취소하고,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벌어진 일이다.

HSBC는 원래 이달에 중간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분기 실적에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계획을 철회했다. SC는 올해 최종 배당에 대한 결정은 1년 동안 그룹 전체의 재무 성과와 중기 전망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은행의 이 같은 결정은 영국 금융당국

의 방침에 발을 맞춘 것이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지난달 31일 HSBC, SC, 로이드, RBS, 바클레이스, 산탄데르 등 6개 대형은행에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지 말고, 보너스 지급도 보수적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HSBC와 SC를 비롯해 영국 6개 주요 은행은 배당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자사 주가를 부양하려는 목적의 자사주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다.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영국 금융당국의 이번 개입이 글로벌 경제에서 영국 은행들의 실적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으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기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와 불안정한 시장, 경기 침체로 수익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선 기자 hsbun@

영업점 전문 인력 확충... 시중銀 '대출 줄서기' 없앤다

은행권, 年 1.5% 초저금리 '코로나 대출' 시행

1일부터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1.5% 초저금리 대출이 시중은행 창구로 확대된다. 은행들은 대출 고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인력 확충과 전담 창구 운영, 비대면 채널(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활용해 자금 지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그동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서만 진행됐다. 그러나 보니 업무가 지연되는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긴급자금 수요가 폭증하면서 보증 심사 기간에만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도 발생했다.

◇시중은행, 연 1.5% 초저금리 코로나 대출 시행 = 1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3조 5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공급된다. 시중은행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대출 형식으로 대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연 매출액 5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기간 1년에 1.5%의 고정금리로 공급되며, 신청 이후 3~5영업일 이내로 대출이 실행된다. 또한, 공통적으로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차보전대출 형식 3.5% 공급

연매출 5억 이하 영세 상인 대상 신용대출 최대 3000만원 지원
기업형 소상공인은 1억까지 가능

자금 지원 가속도

인터넷뱅킹 접수·전담창구 운영
신보의 보증심사 업무까지 처리

단, 신용등급이 BBB(소매형소호 3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부동산담입대출과 유흥업 등은 대출제한 업종에 해당한다.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바로 기업은행에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3~5일 내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신청분이 있어 4월 하순까지는 대출 실행에 2~3주가 소요된다. 여기에 1억 원까지 초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산·기술보증기금 지점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보증서 발급에

시중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대비책

신한은행	모바일뱅킹 '살' 비대면 신청, 본부직원 수직명 영업점에 파견, 지자체 차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전용창구 운영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 비대면 신청, 영업점 인력충원(미정)
하나은행	54개 영업점에 본부직원 인력 60여 명 파견, 지자체 차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전용창구 운영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 코로나지원 전담반 운영,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직원 45명 파견, 인터넷·모바일 상담예약 운영
기업은행	임금피크 직원, 신임 지점장 120여 명 전국 영업점에 투입, 인력 추가 배치 검토 중



는 2~4주가 소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을 이미 신청한 소상공인·지역업자 중 신용이 1~3등급이고 대출신청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력 배치·인터넷뱅킹 활용 등 대책 마련 = 이번 초저금리 대출도 첫날부터 고객문의가 빗발쳤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들 문의 전화가 영업 시작하자마자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출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기존에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는 중복 수혜가 안되나,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이날부터 시작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협약대출'에 대비하기 위해 인력 배치 및 인터넷뱅킹 활용 등 대책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인터넷뱅킹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대출 접수 신청과 약정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심사는 영업점에서 직접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영업점 소호 및 기업 경력이 많은 본부 직원들 수십 명이 2주에 걸쳐 영업점에 파견한다.

우리은행은 54개 영업점에 기업대출 경험 많은 본부직원 인력 60여 명을 영업점에 파견했다. 인근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소상공인 대출 수요가 많은 곳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지자체 차원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용 창구도 운영한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조9000억 원의 자금을 풀기로 하면서 서울시내 564개 지점에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한다. KB국민은행도 인터넷뱅킹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창구접수도 가능)토록 했다. 고령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전국 영업점에 코로나 지원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직원 45명을 파견하는 한편 재단과 은행 영업점 130개를 매칭해 대출 상담 및 심사를 협업 중이다. 더불어 비대면(인터넷·모바일) 상담예약을 운영한다. 추후 본점 직원을 영업점에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맡던 보증심사까지 처리하기로 한 기업은행은 인력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17일부터 임금피크 직원과 신임 지점장 120여 명을 전국 영업점에 투입한 상태. 김범근 기자 nova@·나경연 기자 contest@



은성수 '소상공인 금융 지원' 현장점검

금융당국이 1일부터 시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금융지원 방안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현장지원에 나섰다. 은성수(맨 왼쪽)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농협은행 동대문 지점에서 은행 관계자와 얘기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현대캐피탈, 해외자산 '50兆 시대' 개막

플랫폼 표준화 등 실적 시너지
세전 실적 7663억 '사상 최대'

현대캐피탈이 1989년 미국에 '현대오토파 이낸스'라는 이름으로 첫 해외법인을 낸 지 30년 만에 해외자산 50조 시대를 열었다.

현대캐피탈은 작년 해외 금융법인 자산이 50조8184억 원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현대캐피탈 국내 금융

자산(29조 6577억 원)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해외 법인 세전이익(IBT)도 7663억 원으로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현대캐피탈은 표준화 한 비즈니스 모델과 강력한 현지화 전략이 글로벌 실적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캐피탈 측은 "시장 규모와 자동차 금융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적용하는 것은 물론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지 시장과 고객에게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현지 전문인력 중심의 인재풀을 확보하고, 글로벌 법인 간 소통과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을 통일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캐피탈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추진해 왔다. 2012년 국내 여신전문금융사 최초 유럽시장에 진출했고, 국내 금융사 최초로 유럽과 남미에 은행을 설립했다. 현재 미국, 중국, 캐나다, 브라질 등 전 세계 10개국에 진출해 영업하고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MG손보 대주주 변경... "자본확충 통해 새출발"

MG손해보험에 대한 대주주 변경안이 의결됐다.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던 MG손보는 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조만간 자본 확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MG손보의 GP운용사는 기존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된다.

이는 지난해 6월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조건이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 300억 원 △우리는 200억 원 △에쿠온캐피탈 200억 원 △리치앤코 200억 원 △아주캐피탈 100억 원 등 자본출자 투자와 1000억 원의 리파이낸싱 등 총 20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

을 실시할 방침이다.

MG손보는 대주주 변경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정된 자본확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자본확충 완료 후 MG손보의 RBC비율은 200%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MG손보는 전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박윤식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박 대표는 당면과제인 자본확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자본적정성과 '3년 연속 흑자' 저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전을 시작할 전망이다. 객진산 기자 jinsan@

1월 적금 잔액 1兆 급감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연초 인출 증가·저금리 기조 등
22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

은행 정기적금 잔액이 한 달 새 1조 원 넘게 급감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말 예금은행 정기적금 잔액은 전월 대비 1조 487억 원 급감한 35조148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1998년 1월 1조2151억 원 감소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같은 감소세는 우선 지난해 하반기 정기적금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실제,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만 9882억 원이 늘어 2012년 10월(1조164억 원) 이후 6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데다, 10월과 11월에도 각각 4000억 원 넘는 증가세를 유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에는 정기적금 잔액이 36조1975억 원을 기록해 2015년 11월(36조2667억 원)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작년 연말부터 은행에서 예금유치 노력을 축소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은행들은 2020년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신예대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예대유치를 맞추기 위한 예금유치 노력을 펼쳤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정기적금 잔액 증가폭은 1286억 원에 그쳤다.

연초와 설 연휴가 겹친 효과도 작용했다. 자금수요가 많은 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금은행 정기적금잔액(좌) 및 변동폭(우) (단위: 조 원, 천억 원, 1월 기준)



이 밖에도 저금리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1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예금은행 정기적금 금리는 1.74%로 2017년 11월(1.67%)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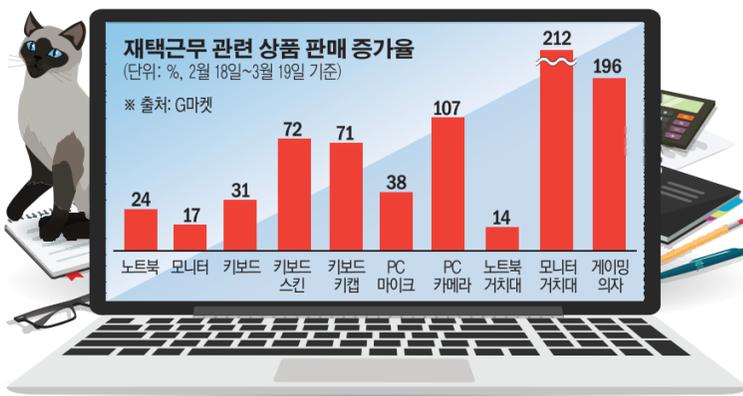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은 작년 하반기 들어 예대유치를 맞추기 위한 예금유치 노력을 펼쳤다. 예대유치 어느 정도 맞추면서 작년 12월부터 유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작년 하반기 늘었던 데 대한 기저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연초엔 자금을 인출하는 경향이 있다.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가 떨어져 금리 메리트가 사라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2월엔 하나은행 영향으로 정기적금 잔액이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하나은행으로 행명을 변경하면서 4000억 원 규모의 정기적금 특판을 시행한 바 있다. 예금금리도 5.01%에 달했다. 이 같은 영향에 2월 가중평균 정기적금 금리는 전월 대비 1.17%포인트 급등한 2.91%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9월(2.92%)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재택근무·온라인 개학...노트북 물량 달리네

수요 폭증에 부품 수급난 영향
삼성 '갤럭시북' 일부 재고부족
늦으면 한 달 이상 배송 지연
G마켓 노트북거치대 판매 2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일부 소핑몰에서 노트북 부족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 여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노트북 모델은 배송에만 한 달 가까이 소요된다.

1일 전자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최신 노트북 '갤럭시북 이온' 시리즈는 일부 인터넷 소핑몰에서 품절 현상을 겪고 있다.

홈쇼핑은 갤럭시북 이온(모델명 N950XCJ) 판매 사이트에 "삼성전자 직배송 상품으로 생산, 운송 및 기타 해당 지역 기후사정으로 인해 약 한 달 이상 배송이 지연되는 상품으로 고객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는 안내문구를 올렸다.

현대 Hmall은 해당 제품을 지난달 25일

부터 이달 25일까지 예약판매하고, 이달 26일부터 입고 후 순차 배송한다고 안내했다. SSG닷컴은 "생산 입고 지연으로 4주 이상 배송이 늦어진다"는 공지글을 올렸다. 일부 사이트는 주문 전 재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LG전자 모델도 소핑 사이트에 따라 제품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트북 배송 지연 현상은 코로나19 사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증가로 노트북을 비롯한 PC 수요가 늘었다.

명함관리 서비스 '리멤버'를 운영하는 드라마엔컴퍼니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변화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등 근무 형태의 변화를 꼽은 이들은 52.5%에 달했다. 대학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도 '온라인 개학'으로 새 학년을 시작하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 업체 G마켓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2월 18일~3월 19일) 노트북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 판매량은 17% 늘었다. 노트북 거치대 등 재택근무 관련

상품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최대 212% 증가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생산 및 물류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극심했던 중국에서 노트북을 생산하고 있다. 2월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중국 내 디스플레이 패널, 기구물, 케이스 등 노트북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 공급 수급난으로 노트북 생산 물량이 3월에 줄어들 것이라는 대란설이 현실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 같은 노트북 배송 지연 사태는 일부 유통 채널에서만 벌어진 제한된 상황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결제 할인 등 대규모 프로모션을 펼치는 홈쇼핑과 대기업 소핑몰을 중심으로 노트북 배송 지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자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3월 초까지는 2월 주문량과 원활하지 못한 물류이동으로 노트북 공급 이슈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3월 초가 지나면서 정상화됐다"면서 "유통 채널별, 모델별 수요 예측 상황이 달라 재고 수준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美 환경청 '에너지 스타상' 삼성전자·LG전자 최고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주관하는 '2020 에너지스타상'에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 확대와 에너지 저감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상인 '지속가능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에너지스타상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1993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환경·에너지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환경·에너지 분야의 약 2만 개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스타 인증 활용, 대외홍보, 마케팅 우수활동을 평가해 수여한다.

'지속가능 최우수상'은 2회 이상 '올해의 파트너'로 선정된 기업 가운데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기업이나 단체가 받는다.

LG전자는 지속가능 최우수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LG전자는 △에너지 스타 인증제품 확대 △다양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LG전자가 북미 시장에 판매하는 제품 가운데 80% 이상이 에너지 스타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해 판매된 에너지 스타 인증제품은 20억 달러를 넘는다. 권태성 기자 tskwon@

LG화학 1.8만명 '스마트워크' 개시

MS 협업솔루션 '팀즈' 도입

LG화학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기반한 '스마트 워크'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화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신저 기반 협업 솔루션인 '팀즈(Teams)'를 이달부터 한국, 중국, 미국, 폴란드 등 전 세계 사업장의 사무기술직 임직원 1만8500명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 기업의 팀즈 도입 사례 중 최대 규모다.

LG화학은 팀즈 도입으로 디지털 업무 공간이 마련되면 비대면(Untact), 무중단(Unstoppable), 무제한(Unlimited)의 '3U' 업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대면 업무 시스템은 실시간 채팅, 원격회의, 문서 공동 작업과 같은 기능을 활용해 구축된다. 업무 상황을 상시 공유해 단순 상황 보고와 같은 문서 작성을 줄이고, 회의 참석을 위한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무중단 업무 시스템이 구현되면 LG화학 임직원은 PC, 노트북,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간단한 채팅부터 회의 내용, 문서 공동 작업 결과 등이 팀즈에 보관돼 누구나 제약 없이 검색 한 번으로 업무 이력을 파악할 수 있어 임직원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LG화학은 임직원이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챗봇(Chatbot) 시스템도 도입했다. 채팅창에 대화하듯 관련 키워드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임직원 검색, 일정 조회·등록, 회의실 예약, 근무시간 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LG화학은 AI를 기반으로 사내 모든 정보를 챗봇에 학습시켜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단순 업무 자동화는 물론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과 연계된 생산 진척률, 예산 현황 등과 같은 정보까지 채팅하듯 간편하게 묻고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현대상선 'HMM'으로 새출발 HMM(옛 현대상선)은 1일 서울 종로구 을지로 사옥 1층 로비에서 'HMM 사명 선포식'을 가졌다. 정준(왼쪽부터) 벌크사업본부장, 박진기 컨테이너사업총괄, 배재훈 사장, 우영수 노조위원장, 김현미 수평선회(여직원회) 회장, 최윤성 경영전략실장이 새 사명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HMM

두산밥캣, 코로나에도 영업익 1000억대 선방

1분기 8.7% 하락에 그쳐... "2분기엔 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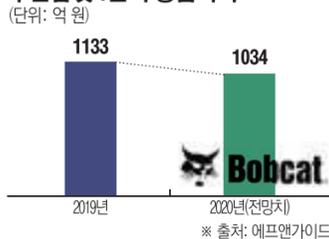
두산밥캣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영업이익 1000억 원대를 지켜 낼 전망이다.

올 초만 하더라도 코로나19가 두산밥캣 매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북미, 유럽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북미, 유럽 지역에도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만큼 두산밥캣은 2분기부터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두산밥캣은 올해 1분기 영업 이익 1034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작년 같은 기간(1133억 원)과 비교했을 때 8.74% 하락했지만, 1000억 원대를 유지한 것이다.

모회사이자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의 1분기 영업이

두산밥캣 1분기 영업이익 (단위: 억 원)



익 전망치(1840억 원)가 전년 동기 대비 26%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산밥캣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두산밥캣 실적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북미, 유럽 지역이 애초 코로나19 영향을 적게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두산밥캣 전체 매출 중 북미, 유럽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다.

중국 시장을 주로 공략하는 두산인프라코어와 대조적이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 두산밥캣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지난해 북미 스키드 스티어러더(SSL), 콤팩트 트랙터(CTL) 시장에서 두산밥캣은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두산밥캣은 유럽 소형 건설장비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북미, 유럽 지역에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두산밥캣 실적은 2분기부터 하락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럽, 미국은 코로나19 여파로 공장이 멈춰 서는 등 경제활동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두산밥캣은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북미건설장비 전시회 콘엑스포에서 미니 굴착기 신제품 등을 공개하며 마케팅 활동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영업활동은 물론 판매량 목표치 달성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한화큐셀 태양광 제품 獨 소비재 어워드 1위

한화큐셀이 '독일 생활 소비재 어워드'(Life & Living Awards 2020) 태양광 분야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독일 보도전문 채널인 엔티브이(n-tv)와 독일 서비스품질연구소(DISQ)가 주관하는 이 어워드는 수만 명의 소비자가 평가자로 참여해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시장의 평판 척도가 되는 주요 어워드다.

올해는 41개 분야에서 수상기업을 선정했으며 한화큐셀은 신설된 태양광 분야에서 종합 1위에 올랐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분야는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11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종합 만족도, 추천도, 재구매 의사를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된 결과 종합 만족도와 재구매 의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한화큐셀은 국제 표준품질기준(IEC)의 2~3배에 달하는 엄격한 자체 테스트를 통과한 뛰어난 제품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독일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삼성중, 친환경 선박도로 개발

삼성중공업은 일본 도로 제조사인 추고쿠 마린포인트(CMP)와 함께 친환경 수송성 도로 개발에 성공하고, 건조 중인 18만톤급 LNG운반선에 적용했다고 1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이 이번엔 새롭게 개발한 수송성 도로는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인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인체 유해 성분이 없으며 화재·폭발 위험도 없는 수송성 도로의 친환경적 특징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높은 방청 성능과 부착력, 동절기에도 작업이 가능한 탁월한 시공 능력 등 기존 수송성 도로의 단점을 모두 극복했다.

삼성중공업은 2018년 11월 도로의 점도를 낮춰 시공을 쉽게 하기 위해 포함되는 화학물질(용제)을 없앤 무용제 도로를 조선업계 최초로 개발한 바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세상을 바꾸는 금융

국민이 있기에 내일은 **희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의 희망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몸을 아끼지 않는 의료인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는 119 구급대원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일하는 자원봉사자들
서로를 위해 예방수칙을 지키고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

우리 국민은 어려운 시기에 항상 하나되어
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내일은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
다시 모두를 웃게 할 수 있도록
KB금융그룹이
국민의 희망 행렬에
함께하겠습니다



카니발 150만원 ↓ 말리부 233만원 ↓ ...판매 총력전



완성차 5사, 대대적 할인

완성차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판매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세금 부담을 대신 지원하고 할부와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등 대대적 혜택으로 소비자 유인에 나섰다.

1일 현대차는 제네시스 G70과 G90을 2.5%, G80은 1.25%의 낮은 금리에 판매하기로 했다. 더 뉴 아반떼는 금리 1.5%를 적용하고, i30는 50만 원을 할인한다.

기아차는 카니발과 스포티지를 최대

150만 원, 모닝·K3는 최대 110만 원 할인한다. 카니발 2.2 디젤 9인승 모델 최고급 트림(389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3740만 원에 차를 살 수 있다.

RV 차종을 보유한 고객이 이달 카니발을 새로 구매하면 50만 원을 할인하는 혜택도 준비했다. 또한, 만 60세 이상이 이달 모닝과 레이·K3·니로 HEV·스토닉·스포티지를 구매하면 20만 원을 할인하고 80만 원 상당의 종합 건강검진권도 증정한다.

내수 확대가 절실한 외자계 3사는 더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개별소비세 이외의 추가 세금 부담을 지원하는

'텍스프리 이벤트'를 선보였다. 말리부와 트랙스, 이쿼닉스 구매 고객은 취득세(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3338만 원인 말리부 2.0 터보 최상위 트림을 예로 들면 7%에 해당하는 233만 원에 개별소비세 인하분 143만 원을 더해 총 376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콤포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스파크 일부 모델은 10년 차 자동차세인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무이자 할부 대상도 확대한다. 스파크와 말리부, 트랙스, 이쿼닉스 구매 고객을 위해 36개월 전액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또는 최초 1년간 월 1만 원의 최소 금액으로

차를 살 수 있는 '만원의 행복' 할부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만원의 행복' 할부는 초기 구매 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고객을 위한 맞춤형 할부 프로그램이다. 최초 1년간 월 1만 원씩 내고 이후 3년간은 4.5% 이율로 할부가 진행된다.

르노삼성은 5~6년에 달하는 '장기할부'에 집중했다. 지난달 출시한 XM3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72개월간 3.9% 저금리 할부 또는 기존보다 높은 잔가율을 보장하는 36개월 5.5% 금리의 엑스피리언스(Xperience)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SM3 Z.E.와 르노 트위지 등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특히 SM3 전기차를 현금으로 사면 600만 원을 할인받을 수도 있다.

쌍용차는 이달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최장 보증기간 연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먼저, G4 렉스턴과 코란도, 티볼리 등 SUV를 구매하면 선수금 및 금리 제로 무이자 할부(36개월)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국내 최장 10년/10만km 보증기간을 확정했다. 이 밖에 블랙박스과 프리미엄 튜닝으로 구성된 '리스펙트 기프트' 패키지 무상으로 전환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SKC 솔믹스, 中 반도체 세정시장 진출

300억 투입 우시 공장 설립
'불순물 제거 라인' 내년 가동
美·대만 글로벌 확장 신호탄

SKC의 반도체 부품소재 전문 자회사 SKC 솔믹스가 중국으로 반도체 세정사업을 확장한다. 중국을 시작으로 대만, 미국 등 글로벌 반도체 세정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방침이다.

SKC 솔믹스는 1일 경기 평택시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반도체 장비와 부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반도체 세정사업의 중국 확장을 결정했다. 약 300억 원을 투입해 중국 반도체 생산량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장강 삼각주 지역에 있는 우시에 법인을 설립하고 연내 공장을 세운다.

내년부터 상업화를 시작해 중국 내 고객사를 확대하고, 증설을 통해 대만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세정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각종 부품과 장비를 세척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이다. 불순물은 미량이라도 반도체 제품 수율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반도체 제조사에선 일정 기간 사용한 장비와 부품을 깨끗하게 씻어내 다시 사용한다.

최근에는 반도체 회로가 미세해지면서 불순물 세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규모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회사 자체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은 2020년 1조2000억 원 규모에서 2025년 2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SKC 솔믹스는 반도체 세정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과 철저한 설비 자동화라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SKC 솔믹스는 2004년 국내 반도체 세정사업에 진출한 뒤 관련 노하우를 쌓아왔으며, 건물 설계부터 최신 품질 검사시스템 등 각종 설비까지 업계 최고 수준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번 세정사업 확대로 SKC 솔믹스는 기존 사업과 상호 보완 효과를 내는 등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세정사업은 경기 변동성이 낮아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장비, 부품을 재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SKC 솔믹스 관계자는 "세정사업은 규모는 물론 성장성도 크다"면서 "SKC 솔믹스는 16년에 걸친 세정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르게 중국 사업을 안정화하고, 글로벌로 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갤S20 울트라' 메모리 용량 2배 한정판 출시

512GB 모델 179만원

삼성전자가 메모리 용량을 크게 늘린 '갤럭시S20 울트라'를 출시한다.

삼성전자는 6일부터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S20 울트라 512GB 모델(사진)을 한정판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품에는 16GB 램이 탑재된다. 삼성은 공급물량을 공개하지 않았다. 가격은 179만3000원으로 갤럭시 S20 울트라 256GB 제품보다 19만8000원 비싸다. 색상은 코스믹 블랙 한 종류다.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는 512GB 메모리와 16GB 램을 탑재한 갤럭시 S20 울트라가 출시된 바 있다. 반면 한국에선 12GB 램과 256GB 메모리만 지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고용량 메모리 제품을 출시해달라는 소비자의 요청이 이어져 갤럭시S20 울트라 512GB 버전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송영욱 기자 syr@

중기부 “특허·디자인 침해, 고소 없어도 직권조사”

기술보호 강화방안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스마트공장에 보안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기술 유출 예방부터 피해 구제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 특히 특허·디자인 침해의 경우 법을 개정해 고소 기간 제한 없이 신고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특허·디자인 침해되는 진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다.

1일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제3차 ‘상생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한 것이다.

먼저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주요 자산을

스마트공장에 보안솔루션 제공... 신기술 이전·거래 활성화 법무지원단 내 침해구제팀 신설... 피해기업에 로펌 수준 지원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에 보안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공장에 기술자료 임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에 2년간 기술자료 의무 임치 규정을 신설했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목표는 누적으로 올해 4000건, 내년 8000건, 2022년 1만 2000건이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물리적, 기술적 보안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한다. 제조공정 간 연계성이 높은 Lv 3 이상 공장부터 시행하되, 비용은 스

마트공장 사업비의 지출로 인정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신기술의 이전·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대기업 등의 수요 기업과 중소기업 신기술을 매칭하고, 코디네이팅을 통해 공정한 기술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중소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중기부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 R&D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요건도 완화한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행

정조사 대상 기술은 현재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 여부를 요구하고 있어, 기술 보호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가 제한된다. 이에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피해구제 강화에도 집중한다. 기술침해의 증거 대부분은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기업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강력한 증거 확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특허·영업비밀 관련 침해소송의 초기에 침해자와 피침해자가 증거자료를 상호 교환한다는 제도다.

또한, 지식재산 침해범죄를 진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한다. 현재 특허·디자인 침해되는 진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로부

터 6개월 이내 고소를 해야 수사할 수 있다. 중기부는 법을 개정해 고소 기간 제한 없이 신고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선키로 했다.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때문에 승소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는 법무지원단에 지식재산권 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침해구제팀을 신설해 행정조사 결과 시정 권고·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기업에 대형 로펌 수준의 소송대리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영선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기술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은 ‘상생조정위원회’로 자율적 합의를 유도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V4’ 장기 흥행 체제 구축·해외 진출 확대 넷게임즈 ‘부활의 날개’ 폈다

게임 개발사 넷게임즈가 V4의 장기 흥행과 해외 진출에 힘입어 2020년 안정세에 올라선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내에 론칭한 ‘V4’가 유저들의 호평 속에 장기 흥행 체제를 구축하며, 2019년 매출은 지난해 대비 약 20% 성장했고, 지난해 4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수익성 측면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작 개발에 들어간 투자금 증가로 발생한 자본 잠식 역시 해소하며,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게임즈의 세 번째 출시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최상위권
지난해 매출 전년 대비 20% 성장
흑자전환 성공, 관리종목도 해제
대만·홍콩·마카오 등 진출 박차

작 ‘V4’는 동시대 최고 수준의 그래픽 퀄리티와 완성도,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제공에 따른 꾸준한 인기로 장기 흥행 청신호가 켜졌다. 이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MMORPG 시스템을 기본으로 인터 서버 등 새로운 기능을 더한 것이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평가다. ‘V4’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MMORPG 시장의 틈바구니를 뚫고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순위 최상위권에 굳건히 자리잡은 유일한 신규 지식재산(IP) 기반 게임이다. ‘V4’를 즐기는 대부분의 이용자는 안정된 서버 환경에서 수백여 명이 동시에 한 곳에 모여도 끊김 없이 가능한 대규모 전투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잘 짜인 게임 구조 속에 콘텐츠들이 서로 촘촘

하게 연결돼 즐길 거리가 많다는 피드백도 잇따랐다.

지난해 12월 이를 뒷받침하는 지표도 공개됐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집계에 따르면 최신 모바일 신작 중 ‘V4’의 1인당 평균 이용시간은 6.24로 1위, 11월 모바일 게임 통합 랭킹은 2위에 각각 올랐다.

이와 함께 모바일과 연동되는 PC 베타버전을 출시해 기존 PC 온라인 게임을 뛰어넘는 그래픽 품질과 성능을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버전은 에몰레이터(스마트폰 앱을 PC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가 아닌 PC 클라이언

트를 지원하는 만큼 안정성이 뛰어나다. 이처럼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V4’는 3월부터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 정식 서비스를 시작으로 글로벌 진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편, 넷게임즈는 서브컬처 시장에 특화된 그래픽과 메카니즘을 탑재한 모바일 캐릭터 수집형 RPG ‘프로젝트MX’(가칭)를 차기작으로 준비 중이다. ‘프로젝트MX’는 투입된 자원을 강조하는 블록버스터 게임들과 확연하게 차별화되는 디자인과 개성적인 매력으로 유저와의 교감과 애착을 강조하는 감성소구형 게임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네이버 그룹형 SNS ‘밴드’ 미국서 통했다

**美 코로나 국가비상사태 이후
‘리모트 커뮤니케이션 툴’ 주목
신규 그룹·가입자 수 급증
월간 사용자 250만 명 넘어**

네이버는 그룹형 SNS인 ‘밴드’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일 네이버에 따르면 2012년 국내에서 출시된 밴드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이후 동아리, 방과후 활동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방과후 활동이 활발한 미국 시장에서는 치어리딩, 스포츠 팀 등을 중심으로 사용성이 높다.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의 밴드 월간 사용자 수(MAU)는 2016년 대비 17배 증가



미국 오하이오주 한 고등학교의 교사가 밴드의 라이브 방송 기능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한 250만 MAU를 넘어섰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미국에서도 비대면 중심의 원격근무, 원격수업 등이 확산하면서, 밴드가 리모트 커뮤니케이션 툴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3월 13일

(현지시간) 이후 밴드에서 만들어진 평균 신규 그룹의 숫자는 140% 증가했으며 신규 가입자 수는 81% 늘어났다.

미국에서는 주로 제한된 멤버 간의 밀착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높은 그룹일수록 신규 밴드를 만드는 비율이 높았다. 치어리딩 관련 밴드의 경우, 신규 그룹 개설이 540% 증가했으며, 종교 그룹 232.4%, 학교가 133.5% 증가했다.

이학선 네이버 그룹&CIC 리더는 “미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밴드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 그룹 멤버 간의 리모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려는 니즈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밴드는 가장 편리한 글로벌 그룹 커뮤니케이션 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와 사용성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신성이엔지, 외부 전문경영인 영입

**산은 출신 김수재 부회장 선임
위니케어는 롯데 출신 강승하 사장
수익성 개선 등 ‘내실경영’ 강화**

신성이엔지가 내실경영 강화와 전사 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외부 전문경영인을 영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신성이엔지는 사업과 경영 총괄을 위해 김수재 선임 부회장을, 계열사 위니케어는 강승하 사장을 각각 선임했다.

회사는 최근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흑자 전환을 달성하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았기에, 이동형 스마트 음압병실, 천장형 공기청정기 퓨어루미 등과 같은 신제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김 부회장은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KDB산업은행에서 30여 년간 종합기획부장, 성장금융부장 부부장, 경영관리부장 부회장을 역임하며 투자, 금융, 기획,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전문성이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안양과 성남을 연결하는 제이경인 연결고속도로의 대표이사를 맡아 금융을 넘어 엔지니어링까지 다양한 시장 경험을 쌓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더불어, 신성이엔지는 천장형 공기청정기 퓨어루미와 바람을 통해 미세먼지를 제

강석균 안랩 신임대표 취임 “창립 25주년, 새 도약 도모”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등 어려운 시기에 대표를 맡게 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강석균(사진) 안랩 신임 대표는 1일 판교 사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창립 25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도모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고객, 임직원, 주주 등 모든 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한국IBM 스토리지사업 본부장, 코오롱네트 상무이사, 한국인포메티카 대표이사, 다이멘션데이터 사업총괄 부사장, 액센츄어 금융산업그룹 전무 등 국내외 IT기업과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친 경영 전문가다.

안랩에는 2013년 전략사업본부장(전무)으로 입사해 2014년 안랩 국내사업 총괄 부문장으로 승진했다. 사업부 체제로 조직을 개편한 2015년에는 엔드포인트 플랫폼(EP)사업부 총괄을 맡았으며, 사업부의 성장을 견인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2019년에는 ‘EPN사업부’를 총괄하며 사업부를 안정적으로 성장시켰다. 김우람 기자 hura@



김수재 부회장 강승하 위니케어 사장



거하는 퓨어게이트 등과 같은 소비재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위니케어에 강승하 사장을 선임했다.

강 사장은 서강대학교를 졸업한 후 롯데 그룹에 입사해 기획조정실, 롯데카드 인사총무팀장, 제휴영업부부장, CRM본부장을 거쳐 롯데멤버스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위니케어에 영입되었다.

신성이엔지 김 부회장은 취임사에서 “국내외의 상황은 위기국면이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 임직원 모두 맡은 일을 차근차근 챙기며 실행하고, 수익성 개선과 유동성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해 100년 기업으로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위니케어 강 사장은 “신성이엔지와 위니케어에 새로움을 더하는 역할과 마그마 같은 열정, 트랜스 신성이엔지, 플랫폼 신성이엔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영희 기자 che@

‘빙그레 vs 롯데’ 빙과시장 1위 싸움 불붙었다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인수하며 42.7% 점유율 1위 올라
롯데제과·푸드 연합과 ‘양강구도’... 해외사업·신제품 경쟁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로 기존 4강 체제였던 양산형 아이스크림 시장이 ‘빙그레 vs 롯데 연합군(롯데제과·롯데푸드)’이라는 양강 구도로 개편됐다. 저연령층 감소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로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지만 장수 브랜드 파워가 강한 제과·빙과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빙그레는 생존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지난달 31일 해태제과식품과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 보통주 100%인 100만 주를 1400억 원에 인수했다. 빙그레는 이번 인수에 대해 “해태아이스크림이 보유한 부라보콘, 누가바, 바밤바 등 전 국민에게 친숙한 브랜드들을 활용해 기존 아이스크림 사업부문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빙그레의 아이스크림 해외 유통망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은 빙그레가 26.6%, 해태제과식품(해태아이스크림)은 16.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빙그레는 산술적으로 42.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해 시장 1위를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롯데제과는 29.0%, 롯데푸드는 15.3%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 별도 법인이지만 롯데 계열사로 묶을 경우 두 회사의 점유율은 44.3%로 빙그레보다 다소 높다. 따라서 국내 빙과 시장은 양강 구도 아래 수십 년 동안 세대를 이어온 장수 브랜드 간 격차 게임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이번 투자는 국내 양산형 아이스크림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5년 2조337억 원이었던 시장 규모는 수년간 내리막길을 걸어 지난해



1조6163억 원으로 줄었다.

시장 축소 상황에서도 빙그레가 이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한 것은 냉장 제품(우유 및 유음료)과 냉동 제품(아이스크림)으로 양분돼 있는 사업이 정제돼 있어 사업군의 볼륨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빙그레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냉동 및 기타 품목군(아이스크림·기타) 매출액은 3608억 원을 기록해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품목군 매출액은 2010년 3055억 원을 기록한 이후 10년간 3000억 원 대에 묶여 있다.

이에 따라 빙그레는 메로나, 봉어싸만코, 투게더, 비비빅 등 기존 인기 브랜드 라인업에 부라보콘, 누가바 등 해태제과 베스트셀러 브랜드를 더해 외형을 키워 국내 점유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출의 90% 이상을 내수 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 시장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는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 제품 수출 계획도 갖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작은 숫자이긴 하나 해외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통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빙그레는 최근 몇 년 새 중국·미국 법인을 차례로 설립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신흥 시장인 베트남에 주목해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해 나서고 있는 만큼 해태 아이스크림 브랜드도 수출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도 빙그레의 강공에 대응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신제품을 출시해 맞불을 놓는다.

롯데제과는 이날 월드콘의 광고 모델로 프로그래머 페이커를 발탁했다. 페이커(본명 이상혁)는 부동산 온라인 1위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를 대표하는 프로그래머다. 롯데제과는 10~20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페이커를 월드콘 모델로 발탁해 아이스크림 1위 아성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빙그레가 최근 슈퍼콘 모델로 ‘유산술’을 발탁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롯데제과는 2월 뉴트로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인 ‘돌아온 엄마의 실수’를 출시하기도 했다. 롯데제과는 매년 15개 내외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인경무 기자 noglasses@

오후 5시에 제공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봄을 맞이하는 흥차의 향기 신세계백화점은 봄을 맞아 포트넘 앤 메이슨의 올봄 한정 상품 ‘셀레브레이션블랜드 티(4만8000원)’를 포함한 흥차와 비스킷을 1일부터 판매한다. 셀레브레이션블랜드 티는 재스민 향이 특징으로 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맛이며, 함께 선보이는 ‘로즈 푸종 티(4만8000원)’, ‘피카딜리 슐티드 카라멜 비스킷(2만8000원)’, ‘카모마일 인퓨전(2만8000원)’도 싱그러움 향과 맛을 자랑한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대형마트 못지않네”... 편의점, 장바구니 할인전

CU ‘알뜰 장보기 프로모션’·이마트24 덤 증정 등 행사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 업계도 생필품과 먹거리 할인에 나서며 맞불을 놓는다.

이마트24는 4월 한 달간 간편식, 과자, 빵, 음료 등 먹거리와 대용량 생필품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코로나19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며 편의점에서 간편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생필품을 동시에 구매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마트24의 3월 생수 2L와 묽음붕지면 등 대용량 상품의 매출은 전월 대비 20% 늘었다.

이에 이마트24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대용량 생필품까지 원스톱 구매가 가능하도록 행사 상품을 구성했다. 4월 전체 행사 상품 1380여 품목 중 80%인 1090여 품목을 먹거리로 선정해 1+1, 2+1, 덤증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하루e리터 2L(6입), 민생3겹 화장지(30롤) 등 대용량 생필품을 중심으로 장보기 행사를 연다.

GS25도 4월 1100여 종에 대해 1+1과 가격할인 등 파격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즉석밥 등 가정간편식(HMR) 80여 종 상품을 2+1에 팔고, 탄산음료와 기능성 음료 등 상품 100여 종은 1+1, 2+1 행사에

나선다. 맥주 4캔에 1만 원, 와인 2병 구매 시 최대 40% 할인 행사도 연다.

CU는 ‘알뜰 장보기 프로모션’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대상 상품은 약 50여 종으로 통조림, 라면, 즉석밥 등 비상품뿐만 아니라 고등어 구이, 포기김치 등 주로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던 식자재까지 범위를 넓혔다. 식빵, 모닝롤 등 베이커리류와 사과, 바나나 등 과일은 용량을 늘리고 가격은 시중 판매가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이 외에도 생활용품 카테고리에서도 최대 50%의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세븐일레븐도 4월 한 달 동안 총 1100여 개 품목을 선정해 대대적인 증정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한 점포에 들어가는 상품 수가 최대 2500여 개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의 45%가 행사상품으로 꾸러지는 셈이다. 즉석밥과 통조림 등 가공식품을 평소보다 70% 늘린 총 120여 품목으로 준비했고, 신선·냉장식품도 두 배 확대했다.

편의점 업계가 대규모 프로모션에 나서게 된 이유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와는 달리 소비 절벽 여파가 편의점에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개학



등에 따라 줄어든 유동 인구가 편의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코로나19 초기인 1월 셋째 주 대형마트와 편의점 매출액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1%, 5.7%였지만, 한 달 뒤인 2월 셋째 주에는 5.0%, 2.7%로 대형마트가 성장했다. 생필품과 신선식품 등 장기 저장 목적 소비(사재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편의점 관계자는 “대용량 상품 판매가 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프로모션은 대용량 생필품 위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GS25, 국산 수제맥주 ‘남산’ 출시

다섯 번째 랜드마크 시리즈

GS25가 다섯 번째 랜드마크 시리즈 수제 맥주인 ‘남산’을 2일부터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남산은 국내 맥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가의 시트라 홉(레몬, 오렌지향이 나는 프리미엄 홉)과 모자의 홉(패션프루트, 블랙커런트 향이 나는 프리미엄 홉)이 사용된 알코올 도수 4.5%의 수제 맥주다. GS25는 남산이 독특한 프리미엄 홉으로 인해 풍부한 과일 향과 짹짹한 끝맛이 완벽한 균형을 갖췄다고 평가하고 있다.

남산은 에일 맥주 애호가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황금빛의 브리티시 골드 에일 맥주다. 청량감 있는 시트러스(감귤류) 향은 수제 에일 맥주를 처음 접하는 고객이나 20대 여성 고객들의 선호도에도 부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남산은 국내 수제 맥주 제조 1세대의 명품 양조장인 ‘카브루’에서 만들어진다. 카브루가 GS25와 손잡고 작년에 선보인 세 번째 랜드마크 수제 맥주 ‘경복궁’은 세계 3대 맥주 품평회인 인터내셔널 비어컵 2019(International Beer Cup 2019)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GS25는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도 서울의 중심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남



산을 감성적으로 형상화해 맥주캔에 디자인했다. 가격은 4500원이고 출시 후 3캔에 9900원에 판매하는 행사에 돌입한다.

GS25에 따르면, 캔 맥주(500ml 캔 기준) 매출 중 수제 맥주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2018년에 2.1%에서 2019년 7.0%, 2020년(1~3월) 8.3%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GS25는 혼자 집에서 맥주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한 잔을 마셔도 프리미엄급으로 즐기려는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구중 GS리테일 맥주 담당MD는 “GS25의 수제 맥주가 국가 대표 맥주로 자리 잡으며 수제 맥주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향후 종량제 전환에 힘입어 GS25 랜드마크 수제 맥주를 10종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정현식 떠난 ‘맘스터치’ 해외사업 재검토

부진한 美·베트남 사업장 철수... 수익성 중심 경영 기조

해마로푸드서비스가 운영하는 버거 브랜드 맘스터치가 미국과 베트남 사업의 실적 부진에 따라 철수를 결정하며 해외 사업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회사 주인이 창업주인 정현식 회장에서 사모펀드인 케이엘엔 파트너스로 바뀌며 외형 확대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 기조가 확립됐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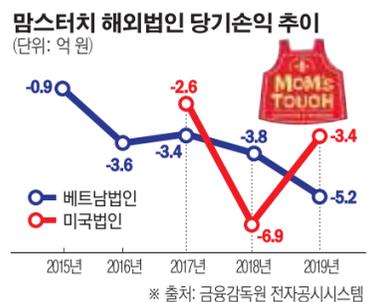
정 회장은 2004년 해마로푸드서비스를 설립해 맘스터치를 국내 대표 버거 브랜드로 성장시켰으나 지난해 말 2000억 원의 주식을 케이엘엔파트너스에 매각하며 갑작스레 경영에서 손을 뗐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

면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올해 2월 이사회에서 ‘자회사 MOM’S TOUCH VIETNAM, LLC.(베트남 법인) 청산의 건’과 ‘자회사 HFS GLOBAL, inc.(미국 법인) 청산의 건’을 가결했다.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라던 정 회장의 지에 따라 2015년부터 해외 사업을 시작한 맘스터치는 베트남과 대만, 미국, 싱가포르 총 4개 시장에 진출했으나, 절반인 2개 사업장의 철수를 결정할 것이다.

베트남 법인은 △2015년 9000만 원에 이어 2016~2018년 매년 3억 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미국 법인 역시 2017년 2억6000만 원, 2018년 6억9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 두 사업장



은 지난해에도 각각 5억2000만 원, 3억4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이어졌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과 베트남 법인의 경우 현지 사업 노후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해 재정비하기 위해 법인 청산을 결의한 것”이라며 “철저히 준비해 마스터프랜차이즈 방식 등을 활용해 시장 재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경무 기자 noglasses@

길리어드 쫓는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개발 속도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80만 명을 돌파했다. 사망자도 4만 명을 넘어서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효능만큼이나 개발 속도가 글로벌 시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사(Gilead)가 4월 중 '렘데시비르'의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렘데시비르는 기존 약물을 활용해 새로운 약을 만드는 '신약 재창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대표적인 치료제다. 성공적인 임상 결과를 내놓으면 가장 먼저 출시, 전 세계 코로나19 치료제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렘데시비르 외에도 애브비의 HIV 치료제 '칼레트라', 후지필름도아마화학의 인플루엔자 치료제 '아비간', 로슈의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 등이 신약 재창출 방식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항바이러스 기전에 초점을 맞춘 약물 재창출은 개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기준 확진자 18만 명을 넘긴 미국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사용승인(EUA)을 허가했다. 렘데시비르에 대해서도 빠른 상업화를 약속해 코로나19 치료제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신약 재창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글로벌 현황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현황					
성분	제품명	기존 적응증	제약사	약품	의뢰자	대상 환자	임상 단계	규모	승인일
렘데시비르	-	에볼라*	길리어드사이언스	렘데시비르	길리어드	중증	3상	120명	3월 2일
파비피라비르	아비간	인플루엔자	후지필름도아마화학	렘데시비르	길리어드	중등도	3상	75명	3월 2일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칼레트라	HIV	애브비	렘데시비르	서울대병원	성인	2상(연구자)	100명	3월 5일
오셀타미비르	타미플루	인플루엔자	로슈	칼레트라	서울아산병원	경증	연구자임상	150명	3월 20일
				옥시크로린	강남세브란스병원	접촉자*	연구자임상	2486명	3월 25일
				할록신	고대구로병원	경증	연구자임상	141명	3월 27일
				알베스코흡입제					

☆ 목표표 개발 중 * 예방제 목적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빠르게 움직이는 美길리어드 신약 재창출 방식 '렘데시비르' 이달 중 임상 결과 발표키로

백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은 9월부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연간 10억 개 이상을 생산할 체비를 갖춰 내년 초부터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받는 제품이 속속 등장할 것"이라며 "치료제 개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제약·바이오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

다. 부광약품이 '레보비르'로 신약 재창출 방식의 코로나19 임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신규 파이프라인이다. 전임상 단계부터 검증을 거쳐야 상용화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익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치료제·백신 개발은 속도전 양상이 되고 있다. 각 기업들도 임상 절차를 단축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가 7월 둘째 주부터 인체 임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지난달 27일 셀트리온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가 후발주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항체 치료제의 차별점이 있으며 렘데시비르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는 우리 치료제와 시너지를 낼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사이토카인폭풍을 억제하는 중증패혈증

국내선 셀트리온 7월 임상 부광약품도 신약 재창출 방식 기업들 임상 단축안 고심

치료제 'iCP-NI'의 한국·미국 임상을 추진하는 셀트리온이 iCP-NI에 대한 R&D 인력을 3배로 늘렸다. 독성시험과 효능평가 시험을 동시에 진행해 조기 임상 진입을 꾀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올해 안에 본격적인 임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라젠은 6주 안에 효능성 위주의 유전자 재조합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 미국 식품의약품(FDA)에 임상에 도전하고 12주 이내 안전성 위주의 백신을 만들어 국내 임상을 진행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내놨다. 회사는 "바이러스 유전자 재조합에 관한 독

보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노바셀테크놀로지, 테라젠이텍스, 엔지켐생명과학, SCM생명과학, 이문메드, 파미셀 등이 코로나19 관련 R&D 소식을 전했다. 업계 내부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하면서도 지나친 과정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성과와 성공 가능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단기간 이익을 위해 결과를 과장해서 포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관련 국내 임상에는 총 6건이다. 기존 렘데시비르와 칼레트라, 옥시크로린 임상에 알베스코흡입제(성분명 시클레소니드)와 할록신(성분명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추가했다. 렘데시비르를 제외하면 모두 연구자 임상이다.

알베스코흡입제는 천식 치료제다. 고대구로병원이 코로나19 경증 환자 141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할록신 임상도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를 대상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예방 효능을 알아보는 시험이다. 확진자 노출 후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접촉자 2486명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연구한다. 유혜은 기자 euna@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신속·정확한 K-진단키트, 美·유럽서 퀀텀점프”

바이오 줌인

김수옥 진매트릭스 대표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수많은 국가들의 공급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진단키트 수출 요청에 국내 기업들 대부분 역대 최대 물량을 생산 중이다.

코로나19 진단키트(분자진단) 생산 기업인 진매트릭스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밀려드는 해외 주문에 전 사가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판교의 진매트릭스 사무실에서 만난 김수옥 대표는 “최근 유럽 CE-IVD 인증과 식약처의 수출 허가를 획득하면서 수출량 증가로 24시간 눈코 뜰 새가 없다”라며 “해외주문을 충족시키기 위해 월 100만 테스트 이상의 생산을 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매트릭스는 이미 UAE,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칠레에 수출을 완료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 세계 바이어들의 공급 요청을 접수받고 있다.

이 같은 주문이 이어지고 있는 데는 탁월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진 회사의 제품력이 주효했다는 게 자체 평가다.

진매트릭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네오플렉스 COVID-19'에는 회사가 설립된 2000년부터 꾸준히 연구해 온 분자진단 기술력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네오플렉스는 대용량 검사의 효율성과 간편성을 확보하고 진단 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대폭 줄였으며 호흡기 감염 각종 병원체 50여 개의 교차 반응이 없음을 검증해 정확도를 한층 더 높인 것이 특징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 질병관리본부



김수옥 진매트릭스 대표는 “해외 성능 평가에서 우수성이 확인됐다”며 “미국·유럽 시장 공급을 늘려 회사가 퀀텀점프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권고안 등 세계 각국의 요구 조건에 부합되도록 설계돼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는 점도 매력 요소다.

이 같은 제품의 탄생까지는 시장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확도 높은 진단 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에 집중해온 회사의 노력이 바탕이 됐다.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변종 감염체의 글로벌 확산이 4~6년 주기로 되풀이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고 연구에 돌입, 자체 개발한 관련 플랫폼 보유로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김 대표는 “해외 현장 제품성능 평가에서 타제품 대비 우수성이 확인되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지금부터는 가장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시장의

공급을 확대하며 회사의 퀀텀점프 기회를 만들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국무총리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문위원 등 중책을 맡고 있는 김 대표는 이번 K-진단키트의 명성에 맞는 국내 분자진단 시장의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 기업들 및 식약처 등 정부기관들의 협업이 국내 분자진단 산업 성장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K-진단키트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2013년 427억 달러(52조 원)였던 글로벌 체외진단기기 시장 규모는 지난해 720억 달러(85조 원)대로 급증했으며 2022년이면 1270억 달러(154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GC녹십자, 헌터증후군 치료제 日허가 신청

지난달 희귀의약품 지정

GC녹십자는 파트너사 클리니젠(Clinigen K.K.)이 일본 의약품기기중합기구(PMDA)에 뇌실 투여 방식의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ICV'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헌터라제 ICV는 머리에 디바이스를 삽입해 약물을 뇌실에 직접 투여하는 치료법이다. 기존 정맥주사 제형은 약물이 뇌혈관장벽을 투과하지 못해 중추신경 손상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뇌실 투여 방식의 헌터라제는 헌터증후군의 미충족 수요에 대한 치료 옵션을 확보할 수 있다. 치료가 어려운 중추신경손상을 보이는 중증 헌터증후군 환자는 전체 환자의 70%에 달한다.

일본 국립성숙의료연구센터의 오쿠야마 토라유키 교수가 연구자 주도로 진행한 임상에서 중추신경손상을 일으키는 핵심 물질인 헤파란황산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임상 평가 지표이며 헌터증후군 환자의 지적·신체적 발달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발달 연령'도 개선되거나 안정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터라제 ICV는 지난달 17일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희귀의약품에 지정됐다. 일본은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달리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에 '희소성', '의료상 필요성' 등과는 별도로 '개발 가능성'을 포함하는 만큼, 허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은철 GC녹십자 사장은 “클리니젠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헌터라제가 환자 삶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희귀질환 치료 미충족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을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헌터증후군은 IDS(Iduronate-2-sulfatase) 효소 결핍으로 골격 이상, 지능 저하 등이 발생하는 선천성 희귀질환이다. 일반적으로 남자 어린이 10만~15만 명 중 1명 비율로 발생한다. 유혜은 기자 euna@

카자흐 코로나19 국가 검사기관에 SKL 지정

씨젠의료재단·MPK 공동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은 '의료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된 씨젠의료재단과 메디컬파트너스코리아(MPK)가 함께 운영하는 SKL이 카자흐스탄 코로나19 국가 검사기관의 지위로서 26일부터 보건당국과 공공병원 유증상자 대상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MPK는 2018년 10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내과 기반의 외래종합병원을 개원해 약 2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왔다. 한국 수준의 진단검사 역량을 갖추기 위해 수탁된 단기사 전문기관인 씨젠의료재단과 손잡고 SKL을 병원 내 개설했고, 30여 개 현지 병·의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고품질의 진단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미국 CLIA(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mendments) 생물안전등급 2등급을 갖춘 분자진단 전문 검사센터가 전무한 상황이다.

MPK-씨젠의료재단은 본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진단 키트 수출을 지속 확대할 뿐만 아니라, 양국 보건외교 협력과 한국 선진 기술 전파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향후 러시아 및 신북방 지역 주요 도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국내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사업이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코로나·무역분쟁에 매출 급감” 눈물 젖은 사업보고서

‘경제위협’·‘위기’·‘충격’ 표현 710개 상장사 ‘경영 어려움’ 호소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도

사상 최악의 실적 악화에 기업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수의 상장사들이 사업보고서에 ‘경제위협’, ‘위기’, ‘충격’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심각한 경영 어려움을 설명하는 상황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장사 710개사(전체 상장사의 33.58%)가 사업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영업난을 호소했다. 대다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타격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

사업보고서 언급 키워드



최저임금 인상 △미중 무역분쟁 △북핵도발 △일본 수출 규제 등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상장사들은 지난해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실적에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기준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7.04% 급감한 102조285억 원을 기

록했다. 당기순이익도 52조4420억 원으로 반토막(-52.82%)이 났다. 코스닥 역시 순이익이 10.47%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상장사 492개사(코스피 267사, 225사)는 코로나19가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티케이케미 같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내수부진까지 이어지면서 중국 업체들의 수익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 내 재고 감소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공시했다. 정보산업도 “코로나19로 생산라인이 차질을 빚었고, 차량 출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 부진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지적한 곳도 350개사(코스피 223사, 코스닥 127

사)에 달했다. 중앙오션은 “무역분쟁 영향으로 해운 시황 침체가 겹치면서 신규 발주가 억제되고 있다”고 말했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무역분쟁 여파로 당사 주요 고객사인 북미, 중국 고객사들의 신규 투자가 축소되면서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111개사(코스피 84사, 코스닥 28사)가 지목했다. 신라섬유는 “노동 집약적 산업인 섬유산업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제도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본 수출 규제 43개사(코스피 32사, 코스닥 11사) △북한 미사일 발사 12개사(코스피 8사, 코스닥 4사)도 대외적·정치적

갈등을 실적 부진 원인으로 꼽았다.

업종별 구분도 비교적 뚜렷하다. ‘코로나19’는 특히 여행업(한국공항, 하나투어, 티웨이항공)과 음식료업(하이진, 동원F&B) 기업들의 언급이 두드러졌다. ‘무역분쟁’은 조선업(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과 화학업(SK케미칼, 금호석유화학)이 많았다. ‘최저임금’은 제조업과 유통업, ‘일본과 북한’은 반도체 및 수출업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코로나19 이슈로 현 수준에서 약 -20% 감익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2분기 실적이 바닥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동학개미운동’ 진기록 쏟아진 3월 증시

코로나발 사상 초유 변동장세에 코스피 3월 고점 대비 650P ↓ ‘사이드카’ 4거래일 연속 발동 개인 11.2兆 순매수 ‘역대 최대’



3월 국내 증시는 각종 진기록이 쏟아졌다. 사상 초유의 변동장세 속에 일명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개미 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에 유입되면서 향후 국내 증시의 투자 기조까지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8조4923억 원으로 월간 기준 국내 증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조967억 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초로 10조 원의 벽을 넘었다. 코스닥의 경우 8조3956억 원으로 2018년 1월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액수가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거래일 연속 20조 원 이상이 거래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연달아 갱신했고, 27일에는 증시 역사상 최대인 거래대금 27조

6971억 원을 기록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결과로 실제로 이들은 3월 한 달간 11조1893억 원을 순매수했다. 역대 최대 기록을 연이어 경신했던 1월 4조4830억 원과 2월의 4조8973억 원의 두 배를 넘어선 금액이다.

이 같은 개미들의 매수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증시 대기자금 성격인 투자자 예탁금이 지난 달 30일 기준 43조4583억 원이나 쌓여있다. 2월 말만 해도 31조2000억 원 부근에 머물렀지만 이달 들어 급증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26일에는 45조 원을 넘어이기도 했다.

역대 최대 수준의 변동성으로 지수 관련 기록들 역시 연달아 갈아치웠다. 5일 2085.26까지 올라섰던 코스피지수는 19일 1457.64까지 주저 앉았다. 2009년 7월 17일에 기록한 1440.10 이후 약 10년 8개월 만의 최저치로 증가

기준 역대 최대 하락(133.56포인트) 기록도 다시 썼다. 이날 코스피지수의 폭락으로 유가증권시장 시총 1000조 원이 붕괴되기도 했다.

프로그램 효력중단 조치인 사이드카도 11번이나 발동하는 기록도 당분간 깨지기 힘든 진기록이다. 국내 증시 사상 최초로 3월 19·20·23·24일 4거래일 연속 양대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 밖에도 3월 13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나란히 매매거래 중단 조치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는 2016년 2월 이후 4년여 만이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001년 9·11테러 이후 19년여 만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4월에도 이 같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피의 경우 코로나19로 3월에만 고점 대비 650포인트 하락했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이전 폭락 때보다 한발 빠른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외국인 매수 전환 시기 등을 고려하면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에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대양그룹 오너 2세 대주주로 ‘내부거래 70%’

중견그룹 일감돌보기

신대한인쇄

대양그룹 오너 2세가 대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신대한인쇄의 내부거래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내 계열사 일감을 바탕으로 설립 첫해부터 독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양그룹은 1970년 산업용지인 골판지 원지 생산 전문업체로서 대양제지공업을 모태로 한다. 대양그룹은 판지사를 흡수 합병하며 성장했고 현재는 신대양제지, 신대양제지반월, 대영포장, 광신판지, 신대한판지, 대양판지, 태성산업 등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그룹 내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신대양제지다. 권혁홍 회장(15.86%)과 장남인 권택환 대표(13.75%) 등 친족과 일부 계열사가 53.35%의 지분을 확보한 최대주주다. 아울러 신대양제지는 대양제지공업

신대한인쇄 내부거래 현황 (단위: 백만원, %)

계산기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	5,621	8,082	6,816
영업이익	1	159	124
내부거래	4,227	5,886	4,283
비율	75.2	72.8	62.8

2016년 설립 첫해부터 흑자행진 신대한판지·태성산업 지분 보유 권 대표, 실질적 그룹 최대주주

(46.45%), 신대양제지반월(100%), 대영포장(45.97%), 광신판지(59.91%), 태성산업(45.34%)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그룹 내 계열로는 쥘여 있지 않은 신대한인쇄는 내부거래 비중과 경영 승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2016년 5월 설립됐으며 대양판지 인쇄사업 부문을 양수했다. 권 대표와 특수관계자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이 안정되기 전까지 설립 초창기에 적자를 내는 여타 기업들과는

다르게 신대한인쇄는 수십만 원에 불과하는 하지만 첫해부터 흑자를 냈다. 게다가 설립 시점이 5월로 영업일수가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실적이다. 이러한 흑자 기조 말바탕에는 내부거래가 깔려 있다.

신대한인쇄는 2016년에 매출 56억여 원에 79만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이듬해에는 매출 81억 원에 흑자는 1억5900만 원으로 늘어났다. 2018년은 매출이 68억 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1억 원 이상의 흑자는 유지했다. 이 기간 평균 내부거래 비율은 70.2%에 달한다.

한편 신대한인쇄는 오너 2세인 권 대표의 지배권 강화에도 한몫을 담당한다. 신대한인쇄는 신대한판지(66.7%)와 태성산업(50.9%) 지분을 반수 이상 갖고 있다. 또 두 회사는 지주사 역할을 맡는 신대양제지 지분을 각각 7.76%, 0.14%씩 보유하고 있다. 권 대표의 신대양제지 지분과 두 회사 지분을 합산하면 최대주주인 권 회장 지분을 앞선다. 결국 실질적인 최대주주는 권 대표라 봐도 무방한 셈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온라인 교육株’ 뜨자... 오너家 고점 매도

YBM넷 수혜주로 3배 ‘경춘’ 민선식 대표 등 차익 실현 나서 추가 하루 만에 20% 떨어져

‘온라인 교육株’ 테마에 편승해 단기 급등한 YBM넷 대주주 일가의 고점 매도가 논란이다. YBM넷 주가는 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른 온라인 교육 수혜주로 여겨 한 달간 3배가량 급등했다.

YBM넷은 민선식 대표이사의 특별관계자 중 5명이 보유지분을 전량 장내 매도했다고 31일 공시했다. YBM넷 주가는 2월까지 3000원대에서 움직였지만, 코로나19 확산과 동시에 온라인 교육 테마주로 쥘여 급등했다. 개학 연기로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에 지난달 31일에는 장중 최고 1만900원까지 올라 2월 평균 대비 세 배가량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주가가 급등하자 민선식 YBM사장 일가도 곧바로 차익실현에 나섰다. 민선식 YBM사장의 동생인 민혜성 씨는 27일부터 이틀간 보유지분 6만1756주를 전량 팔아치웠다. 민 씨가 2거래일간 현금화한 금액은 51억8200만 원에 이른다.

주요주주의 자녀로 이름을 올린 민병훈 씨는 31일 14만 주를 9777원에 매도했다. 민지수 씨와 민지현 씨도 각각 7만 주를 비슷한 가격에 팔아치웠다. 세 자녀가 행진 금액은 모두 27억6800만 원 수준이다. 계열사 임원인 이동현 씨도 27일 보유지분 8792주를 7200원에 전량 매도해 6300만 원을 챙겼다.

최대주주 일가가 매도한 YBM넷 주당 가격은 최근 4년 내 최고 수준이다. 지

난달 31일 주요주주 자녀까지 지분을 전량 매도한 후, 주가는 약세로 돌아섰다. 1일 YBM넷 주가는 -20.50% 떨어진 6630원으로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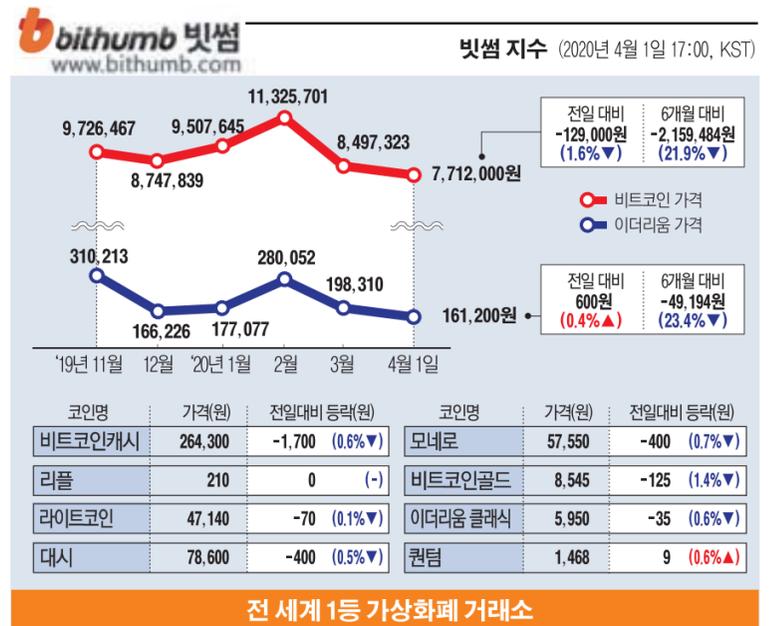
YBM넷은 주요주주 일가가 전제 발행 주식의 60%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 유통주식수가 작아 오너 일가가 추가 상승의 수혜를 오롯이 누리게 됐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YBM넷의 최대주주는 와이비엠으로 지분 34.35%를 보유하고 있다. 민선식 사장이 13.86%를 보유해 2대주주 자리하고 있다. 이 밖에 민 사장의 형제, 자녀 등 일가 지분이 총 59.89%에 달한다.

YBM넷 최대주주인 와이비엠의 최대주주는 와이비엠홀딩스(100%)다. 와이비엠홀딩스의 출자자는 6명으로, 민선식 사장이 지분 69.33%를 보유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와이비엠홀딩스는 민 사장과 형제들이 지분을 출자한 지주사로, 여러 관계사를 통해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벌이는 곳이다.

최근 코로나19 테마주로 쥘린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요주주가 고점에서 지분을 매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달에는 진단키트 관련주로 묶인 랩지노믹스, 이원다이에그노믹스(EDGC)의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임원진들이 지분을 정리했다. 이어 마스크주로 쥘린 강원, 모나리자, 오공에서 지분 매도로 압박에 올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특히 유통되는 주식수가 작아 주가가 빠르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오너 일가가 지분을 전부 팔아치운 건 당시 주가가 고점이며, 향후 호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조언했다. 이정희 기자 ljh@



속도 내는 광명뉴타운... '로또 분양' 15구역 시선 집중

마지막 12구역도 '사업시행인가' 받아 재개발 8부 능선 넘어 분양가 갈등 빚던 15구역, HUG와 3.3㎡당 1920만원에 합의 5월 분양 탄력... 주변 시세보다 싸 차익 노린 투자자들 관심

경기 광명시 광명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모든 구역이 재개발 8부 능선으로 좁히는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넘어섰다. 시장 이목은 선도 구역인 광명15구역으로 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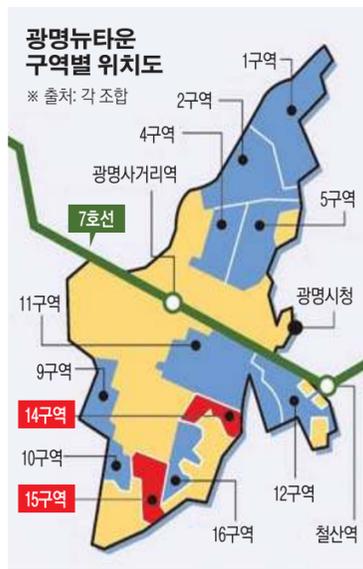
2일 정비업체에 따르면 광명12구역은 지난달 27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이곳은 광명뉴타운 11개 구역 중 유일하게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이었다. 광명12구역이 인가를 받는데 성공하면서 광명뉴타운 전체가 사업시행 인가 문턱을 넘게 됐다.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 인가는 분양가 산정과 함께 가장 어려운 관문으로 꼽힌다.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수정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나면 재개발 사업 윤곽이

훨씬 뚜렷해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12구역은 앞으로 입주까지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12구역은 뉴타운 내 최대 단지인 11구역(3263가구)과 함께 광명뉴타운의 대장주로 꼽힌다. 12구역에도 1200가구에 가까운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데다 서울지하철 7호선과 맞닿아 있어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구역 내 집값도 오름세다. 12구역 내 대지권 지분 36㎡짜리 연립주택 가격은 지난해 연말 4억8000만 원에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 5억2000만 원으로 올랐다.

광명뉴타운 내 다른 구역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10·14·15구역에선 연내 분양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1·9·11구역은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는 게 목표다. 부동산



시장에선 2025년 12구역까지 준공되면 광명뉴타운이 2만5000여 가구 규모 미니신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12구역까지 8부 능선을 넘으면서 이제 광명뉴타운 인파의 관심은 15구역으로 쏠린다. 아직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지 않은

단지 가운데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올 8월 광명뉴타운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15구역 분양가가 후발 구역 분양가를 매기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광명15구역 조합은 분양가를 두고 지난해 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줄다리기를 벌였다. 애초 조합에선 3.3㎡당 2047만 원에 일반분양하길 원했지만 HUG에선 1750만 원대를 고집했다.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려면 반드시 HUG의 보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싸움은 장기화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광명15구역 일반분양은 5월까지 밀렸다.

최근 15구역 조합은 HUG와 타협점을 찾았다. 조합은 6일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3.3㎡당 1920만 원으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15구역 조합 관계자는 "이 정도 선에서 HUG와 접점을 찾았고 그래서 총회에 올리는 것이다. 5월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5구역 분양가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광명 밖에선 '로또 분양' 기대감이 커지고 있

다. 분양가가 애초 계획보다 낮아지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광명뉴타운 중 유일하게 분양을 마친 16구역('광명 에코 자이위브')에선 전용면적 60㎡짜리 입주권 호가가 7억6780만 원까지 올라가 있다. 원래 분양가보다 프리미엄(웃돈)이 4억 원 붙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기존보다 20~30% 낮아질 것이라 기대하는 게 국토교통부 등의 예상이다.

투자자들은 로또 분양에 따른 시세 차익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광명시광명동에서재호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최재호 대표는 "서울 바로 가까워서 이 정도로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은 광명뉴타운 정도밖에 없다"며 "최근엔 코로나19 때문에 집값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지만 한 구역씩 사업이 진행된다 보면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코로나에 발목... 부산 집값 '뚝뚝'

감염 확산에 외지인 발길 줄어 아파트 매매가격 3주 연속 하락

부산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 추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해제로 2년여 만에 가격 반등세를 보였던 부산 아파트 매매시장이 또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외지인들의 발길이 줄줄이 이어질 만큼 뜨거웠던 투자 열기는 세 달을 넘기지 못한 채 가라앉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값은 2월 마지막주부터 2주 연속 보합(0%)을 기록한 뒤 이후 3주 내내 하락 중이다. 지난주 하락폭은 -0.04%였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부산 '해수동'(해운대·수영·동래구)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 직전 하락률과 같은 수치다.

부산 아파트값은 2017년 9월 하락세에 들어선 뒤 2년 넘게 미끄러졌다. 그러나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던 해운대구 등 3곳을 해제하면서 집값이 반등했고, 이후 과열로 불릴 만큼 아파트 매매시장이 들쭉였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는 오래 가지 못했다.

해운대구 우동 더샵센텀파크1차 전용면적 84㎡형은 올해 1월 최고 7억5000만 원에 팔렸으나 지난달에는 실거래 가격이 6억75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연제구 연산동 반도보라아파트에선 지난달 3억2000

만 원에 거래된 전용 80㎡형이 이달 말까지 3억 원으로 내려갔다.

부산 아파트값 하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집값 상승세가 보합으로 전환한 시점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에서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던 때와 일치한다.

부산 집값이 이처럼 빠진 데는 외지인 투기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부산 밖 외지인들의 부산 아파트 거래량은 857건에 불과했지만 규제 완화 이후인 12월엔 1443건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올 들어선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가 1월 993건, 2월 707건으로 줄었다.

부산 내 아파트 거래 중 외지인 매입 비중은 지난해 11월 16.5%에서 12월 19.2%로 높아진 뒤 올 들어 18.6%, 14.9%로 잇따라 낮아졌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건설업 체감 경기 7년 만에 '최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건설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일 발표한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59.5이다. CBSI가 60을 밑돈 건 2013년 2월 이후 7년 1개월 만이다. CBSI는 기업이 건설 경기를 바라보는 심리지표다. 낮으면 낮을수록 경기를 비관적으로 느끼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CBSI는 올해 들어 줄곧 하락세다. 특히 지난달엔 전달(68.9)보다 9.4포인트(P) 하락했다. 동월 기준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통상 3월엔 신규 공사 발주가 늘어 CBSI가 3~

5P 상승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특히 중견기업의 타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중견 건설사의 CBSI는 전달보다 22.6P 급락한 51.2이었다. 6년 만에 최저치다. 대형 건설사(66.7)나 중소 건설사(60.7P)와 비교해도 상황이 심각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규 공사 수주 가뭄이다. 지난달 신규 공사 수주 BSI는 전달보다 12.1P 하락(73.7→61.6)했다. 지난해 연말(107.0)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45.4P 급락했다. 2월 조사에서 건설연은 3월 신규 공사 발주가 늘어나면 건설 경기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순 없을까?”

굿네이버스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행복한 세상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이들 편에 서주세요

아이들 편에서 놀이를 외칩다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1년 반 동안 입원비만 5억 쟁겨 대법 “보험금 부정 취득”

유사 담보 보험 36건 가입
“순수한 위험 대비 아냐”

각종 보험에 가입해 5억 원이 넘는 입원 일당을 받은 가입자가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 화손해보험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한화손보를 비롯한 여러 보험사를 통해 36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월 납입 보험료는 153만 원, 이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 11건의 월 보험료는 36만 원 수준이었다.

이후 A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0회에 걸쳐 230일 동안 입원했고, 한화손보로부터 2439만 원을 받는 등 입원 일당 지급 계약 내용에 따라 총 5억 3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한화손보는 “유사한 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장기 입원 치료를 반복하면서 고액의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보험 계약마다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고 입원 일당을 지급하는 보험 계약의 보험료 액수는 비교적 크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A 씨의 재산 상태, 보험 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 계약 체결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순수하게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다수 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 사고를 빚자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1년 4개월 사이에 7건의 입원 일당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며 “단기간 내에 다수의 입원 일당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입원 병명, 치료 내역 등을 통상적인 경우에 비추볼 때 A 씨의 입원 횟수와 입원 기간은 상당히 잦고 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 씨가 경제적 사정에 비추 부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과도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고, 남편이 택시기사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1일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설치된 2020 봄편 꿈새김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외벽에 내걸린 ‘봄바람 송덩 잘라 당신 고향 날 드리고 싶네’ 글귀는 문안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이유린 씨의 작품이다. 연합뉴스

“서울 거주 모든 해외입국자에 코로나19 검사”

서울시 “지역감염 차단 위해”
확진자 발생한 아산병원
접촉자 114명 전원 자가격리

서울시가 해외 입국자 중 서울 거주자 전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외 입국자로 인한 지역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유럽뿐 아니라 모든 입국자 대한 전수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국장은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가 없거나 적절치 않으면 시의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격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입원 환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아산병원에 대해 5개 반으로 구성된 즉각대응반을 투입했다.

나 국장은 “지난달 31일 9세 입원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이송될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왔지만 재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고 현재 음압병실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파악된 이 여아 환자의 접촉자는 의료진, 환자, 보호자 등 114명으로 이들을 전원 자가격리시키고 코로나19 검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 중 같은 병실에 있던 5명은 1인실로 격

리 배치했고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구로구 집단감염이 발생한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4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시 확진자가 35명을 기록했고 타 시·도 확진자는 6명으로 확인됐다.

나 국장은 “지난달 25일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직원 중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후 추가 확진자는 서울 35명, 인천 2명, 경기도 3명, 전남 1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민교회 확진자 1명의 직장이 있는 금천구 회사 직원 62명을 검사한 결과 1명은 양성이고 나머지 61명은 모두 음성”이라며 “다른 만민교회 확진자 2명의 직장인 금천 콜센터의 74명을 검사한 결과 1명 양성이고 71명은 음성”이라고 밝혔다. 설경진 기자 skj78@

‘도피 21년’ 정한근 1심서 징역 7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넷째 아들〉

401억여 원 추징도

국외 도피 21년 만에 불합쳐 국내로 송환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여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의 상당 부분이 국내로 들어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점과 대부분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동기가 경영권 유지를 위한 사익 추구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한보그룹 고(故) 정태수 회장이 횡령 범행과 관련해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 비추면, 의사결정에 관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피 중 또 다시 재산국외도피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이 사건 재산국외도피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등 매우 액수가 많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401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정 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327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약 323억 원)의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월 자신이 실소유주인 EAGC의 자금 약 66억여 원을 추가로 빼돌린 혐의로 정 씨를 추가기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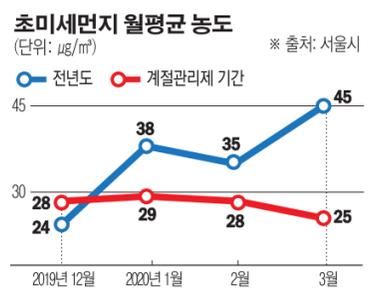
정 씨는 1998년 6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고, 21년 잠적 끝에 에콰도르에서 체포돼 지난해 6월 송환됐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20% ↓ 계절관리제 시행 후 개선 효과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지난해 12월부터 3월 말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5 $\mu\text{g}/\text{m}^3$ 에서 28 $\mu\text{g}/\text{m}^3$ 로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후 월별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12월 28 $\mu\text{g}/\text{m}^3$ 로 전년 같은 해 24 $\mu\text{g}/\text{m}^3$ 보다 증가했으나 1~3월 감소했다. 특히 3월의 경우 지난해에는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농도가 나뉘었으나 올해 대폭 개선됐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좋음일 수도 10일(11일→21일) 늘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인 50 $\mu\text{g}/\text{m}^3$ 을 초과하는 고농도 일수도 14일(21일→7일)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대기질이 개선됐다.

김진희 기자 jh6945@

문턱 높은 ‘서울시 여행업 지원’... 영세 업체들 울상

등록 여행업체 8515개 중 1000곳에 500만 원씩 지원
사업 집행 내역 증빙 ‘후불 개념’... ‘5년 이상’도 걸림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영세 여행 업체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책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지원 혜택이 미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 울상 짓고 있다.

1일 여행 업계에 따르면 서울관광재단이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는 자금 지원 시기와 대상 등 기준이 영세 업체들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서울시에 등록된 여행 업체는 8515개이다.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는 이 중 1000개 업체에 500만 원씩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최소 5년 이상 된 여행 업체로 올해 2~3월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 평균 매출액 대비 7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행 수요 회복 대비 신규 관광수요 맞춤형 상품 기획·개발 비용을 비롯해 △온라인 콘텐츠 고도화 개발·제작 비용 △예약시스템 및 플랫폼 서비스 정비, 홈페이지

개선 등 기반 재조성 비용 △기타 홍보·마케팅 비용 등이 지원 대상이다.

서울관광재단은 여행사들이 집행 내역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여행 업체들 자금 지원 시기와 자격 요건을 문제 삼는다.

A 여행사 대표는 “이번 사업은 말 그대로 ‘후불 개념’이라며 “선정 업체가 발표 시점이 이달 29일이고, 사업을 진행해 증빙하면 5~6월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말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는 가정하에 여행 업계가 살아나면 뭐라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면 사업비를 먼저 끝이다 쓸 수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B 여행사 대표는 “어느 정도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업체의 생존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문구를 보고 숨이 턱 막혔다”면서 “우리는 비록 5년 이상 되지 않았지만 생존이 절실한 곳이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서울관광재단 관계자는 “사업비 증빙 조건은 법적으로 인건비나 임대료 등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면서 “불가항목만 빼고 가능한 한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차원에서 사업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을 지원했는데 업체가 사라지면 안 되니 증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 참여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 메르스, 사드 때도 버텨던 기업들마저 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인 만큼 ‘5년 이상’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ksh@

교수 “75분짜리 강의 4시간 찍어” 학생 “질문 못하고 피드백도 없어”

‘온라인 강의’ 2주 해보니

인터넷 환경 탓 녹화영상 제공 “교육의 질 저하” 불만 쌓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학들이 집합수업 대신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지 약 2주일이 지났지만 적지 않은 혼란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원격 수업 효과를 볼 수 있는 쌍방향 실시간 강의가 축소되고 단방향 녹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대부분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와 경쟁하는 학생까지 양쪽 모두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온라인 강의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교육의 질’ 문제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 초기에 실시간 강의를 하던 교수들은 인터넷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매끄러운 수업이 불가능해지자 사전에 녹화한 영상을 틀어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정경원 경희대 부총학생회장(회계세무학과)은 “수업 중간에 일부 학생의 인터넷 연결이 끊겨서 ‘말씀이 안 들린다’는 글이 채팅창에 뜨면 교수님이 이전 설명을 다시 하곤 하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처음엔 대부분 실시간 강의를 했는데 이젠 교수님들이 녹화본을 많이 올린다”고 말했다.

원격 수업 중 교수와의 소통 부재도 여전히 지적이다. 정 회장은 “교수와 학생 사이에 수업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없어 아쉽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교수들은 수업 준비에 영상 관련 작업까지 해야 되는 만큼 고충이 크다. 모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수정이 어려워 촬영 중간에 설명이 틀리면 다시 지우고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75분짜리 강의를 위해 3~4시간을 찍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실험·실습·실기 수업의 경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창현 한국기술교육대대학혁신사업단장은 “실험·실습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과목은 여럿방학을 이용해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온라인 강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미 연세대, 고려대는 각각 5월 12일, 5월 2일



연세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비대면·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까지 온라인 강의를 연장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례없던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을 결정한 만큼 대학의 원격 수업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온라인) 강의는 성인이 듣는다는 전제하에 운영되는 것이지만 초중고 온라인 개학 및 원격 수업은 이와 다르다”면서 “예컨대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 등은 구체적인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온라인 강의와 다른 적절한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현경 기자 son89@

학생부 정보 한눈에 ‘종합 지원센터’ 개통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대한 궁금증과 관련 자료를 한번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를 개통했다고 1일 밝혔다.

학생부는 학생지도 및 상급 학교(고입, 대입)의 선발자료로 활용되면서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학생부 기재 관련 지침 내용과 변경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주는 곳이 없어 학부모, 교사 등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유선,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학생부 종합지원센터에서 손쉽게 유용한 정보를 찾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 메인 화면.

아울러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센터 내 학생부 ‘부적정 사례 신고센터’도 함께 설치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학생부 종합지원센터는 세 가지 서비스(상담 및 정보제공, 소통 강화, 신고센터 운영)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 34명으로 구성된 ‘학생부 중앙지원단’과 전담 전문 인력이 민원·질의 사항에 대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한다. 온라인을 통해 학생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의 실시간으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전문 상담원과 유선 상담도 할 수 있다.

학생부 종합지원센터는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고등학교 기초·탐구교과(군)의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손현경 기자 son89@

입시일정 단축된 고3... 자소서 미리 준비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의 입시 준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일정도 평소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역시 2주 연기됐다.

이미 개학이 한 달 이상 미뤄졌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전체적으로 짧아졌다. 통상 3월에 실시하는 첫 모의고사도 4월 중순 이후로 넘어 갔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전

기출문제 풀며 현재 실력 점검 범위 바뀐 수학과 탐구 대비도

체적인 수능과 대입 전략을 짜는 것도 현시점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입시 전문가들은 고3 수험생들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본격적인 수능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명찬 종로학원 평가연구소장은 1일 “고3의 경우 더는 수능 준비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실제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수시합격의 최종 관문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는 수능 시험이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합격을 위해

서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고3 수험생들은 우선 최근 3년 기출문제를 풀면서 수능의 경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자신의 현재 실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수학과 탐구의 경우 올해 시험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출제 경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김 소장은 “6월 모의평가를 철저히 분석해 출제 경향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3 수험생들은 개학 연기로 인해 학사일정 단축은 불가피하고 수시 지원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도 부족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시간

이 되는 대로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김 소장은 “자기소개서는 대개 4개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1~3번 문항은 공통이고 4번 문항은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서 “공통문항인 1~3문항은 가능한 한 빨리 작성하고 여러 번 고쳐 쓰면서 더 좋은 자기소개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김 소장은 “학습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시간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재미

공감

위로

BRAVO My Life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LIFE
PLUS

한화생명



잘하고 싶다 자라고 싶다

두 가지 모두를 꿈꾼다면
한화생명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싶다면
누구보다 당당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면
당신의 시작은 달라야 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지원이 함께 하는
한화생명에서 남다른 시작을 여십시오

한화생명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



체계적인 성장지원

시스템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신인FP가 전문가로 거듭나기까지, 한화생명의 지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강력한 활동지원 시스템

가망고객 발굴부터 계약 후 관리까지-다양한 시장확보 지원과 모바일 활동지원으로 고객을 만나는 일이 더 즐거워집니다!



탄탄한 보상체계

활동 초기 든든한 정착지원은 기본!
더 큰 성과에는 그에 맞는 실질적 대우를 약속합니다!

한화생명 FP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hanwhalife.com

본 광고는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직원채용과는 무관합니다

“선 넘는 도전으로 우리만의 방식 만들어 가자”

통합 14주년 맞은 신한은행 ... 진옥동 행장

별도 행사 없이 긴급파견 직원·대구 의료진에 도시락 전달 “정보공유·의사결정 ... 코로나19로 금융업 기준도 바뀔 것”

“선을 넘는 도전으로 우리만의 방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진옥동(사진) 신한은행장은 1일 통합(조흥은행 합병) 14주년을 맞아 진행된 기념식에서 임직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행사는 열지 않았다.

진 행장은 “최초의 민족 자본 은행으로 출발해 ‘금융보국’의 이념으로 달려왔다”며 “지금 신한은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성남공판금육센터에 긴급 파견됐던 직원들과 대구·경북 의료진을 위해 200인분의 도시락을 만들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진 행장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으로 각국 정부와 유수의 기업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다”며 “금융업의 기준도 새롭게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빠른 정보공유와 민첩한 의사결정, 적극적인 실행 등을 통해 신한만의 방식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취임 1주년을 맞은 진 행장은 “고객·사회와 같이 성장하고자 했던 창립과 통합의 역사가 일류 신한의 미래를 세우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객에 집중하고 신한다운 가치를 키우는 일에 모두가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진 행장은 취임과 동시에 ‘고객 중심’을 강조했다. 단순히 1등이라는 숫자에 매몰



되지 않고 고객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리딩뱅크가 되자고 주문한 것. 그는 취임 후 처음으로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정한 1등 은행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지고지순(至高至順)의 가치는 고객”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진 행장은 취임 1년간 ‘고객 중심’으로

경쟁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신한은행은 올해 은행권 최초로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영업전략 수립 권한을 현장에 위임한 ‘같이 성장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새로운 성과평가제도의 개발과 도입은 진 은행장이 취임 이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한 사업이다.

올해 은행의 당기순이익 목표를 예년에 비해 낮춰 잡은 것도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경제 상황에서 고객을 위한 영업을 하겠다는 진 은행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을 고객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영업점에 펀드 판매를 제한하는 ‘펀드판매정지제도’, 투자상품과 관련된 신탁그룹과 IPS(Investment Product & Service) 그룹 부행장의 성과평가를 상품판매 실적 아닌 고객 보호 관련 전략과제 평가로 바꾼 ‘경영진 평가 기준 개정’ 등 기존 은행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김범근 기자 nova@

‘4월 과학기술인상’ 김상우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4월 수상자로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김상우 교수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재단은 김 교수가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와 정전기를 이용하여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 인체 삽입형 소자를 충전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차세대 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하베스팅(energy harvesting)은 진동, 하중, 빛, 열 등 일상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수집해 전기로 바꾸는 기술이다.

이재훈 기자 yes@

주명현 사학연금공단 이사장 취임

사학연금공단은 1일 제19대 이사장에 주명현 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주 이사장은 단국대 석사와 숭실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대변인,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쌍방울 ‘42세’ 김세호 대표 선임

쌍방울이 신임 대표이사로 김세호(42) 씨를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2003년 쌍방울에 입사한 후 18년 동안



기획, 영업, 마케팅, 매장 관리 등 내외의 패션 부문의 일선 업무를 바다부터 경험한 ‘정통 쌍방울맨’으로 평가받는다.

쌍방울 측은 “올해 창립 57주년을 맞은 쌍방울이 과거의 낡은 이미지에서 탈피해 젊은 감각과 제품 라인으로 ‘리셋’ 한다는 의지를 반영해 젊은 신세대 대표를 과격적으로 선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웅진, 기조실장에 김정현 상무

웅진그룹이 ㈜웅진기획조정실장에 김정현(사진) 상무를, 웅진북센 대표이사에 이정현 전무를 선임하는 등 임원 인사를 1일 단행했다. 웅진씽크빅 경영지원실장에는 이수중 상무



보를, ㈜웅진IT 신사업총괄본부장에 김상웅 상무보를, ㈜웅진북센 물류사업본부장에는 이범창 상무보를 각각 선임했다.

김정현 웅진 기조실장은 웅진씽크빅 경영기획실장과 단행본본부장을 역임했다. 기자 출신으로 균형감 있는 업무 수행과 내부 소통도 뛰어나다는 평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부음

▲이태자 씨 별세, 임한선 씨 부인상, 임승창(KBS 경제부 팀장)·송배(영화감독) 씨 모친상, 김지일(ADT캡스 수석연구원) 씨 장모상 = 1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02-3010-2239

▲윤동현 씨 별세, 명재용(울산현대축구단 수석코치) 씨 장인상 = 1일, 경남 진주시 진주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7시, 055-759-4141

수협, 창립 58주년 기념식 대신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임준택 회장, 전체 임직원들과 구내식당서 수산물 메뉴 점심

1일로 창립 58주년을 맞은 수협중앙회가 기념식 대신 수산물 소비 운동으로 뜻깊은 생일잔치를 했다.

수협은 이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매년 개최한 창립기념행사를 취소했다. 대신 최근 급격히 수산물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돕고 응원하자는 뜻에서 대규모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임준택 회장과 전체 임직원은 수협 17층 구내식당에서 멧개미역국, 납치전, 굴전, 장어구이 등 수산물로 구성된 점심을 함께하며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에 적



임준택(앞줄 왼쪽 세 번째)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수협 임직원들이 1일 구내식당에서 수산물로 구성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극 나서기로 했다. 임 회장은 이날 사내게시판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전달한 창립 58주년 기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수산인들에게 더

욱 위협적인 위기의 파고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국민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 “해외 주재 직원 안전 최우선”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주재 직원들의 안전 점검과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수자원공사가 1일 밝혔다. 현재 공사는 솔로몬제도 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7개국에서 37명의 주재원이 근무하고 있다.

박 사장은 이날 대전 본사에서 해외 주

재원들과 화상을 통해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직면해 있는 만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며 “전사 차원의 지원과 외교부 및 현지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을 통해 해외사업단 직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ovl1973@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해외 주재원들과 화상으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전보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이예령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장 장상훈

◆금융위원회 ◇서기관 승진 △감사담당관실 정형직 ◇과장급 전보 △글로벌금융과장 김수호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오화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부장 △서남본부장 오익현 △대경본부장 황영하 △전북본부장 최영 △기획조정본부장 변기정 △산업기술전략본부장 김선창 △국가형정생산지원센터소장 김진호 ◇부장급 △뿌리기술연구소 형상제조연구본부장 윤길상 △부품기능연구본부장 이호년 △공정지능연구본부장 문경일 △융합기술연구소 로봇응용연구본부장 지상훈 △공정플랫폼연구본부장 이상호 △섬유융합연구본부장 최영욱 △휴먼융합연구본부장 유의상 △정정기술연구소 지능형생산시스템연구본부장 김철호 △스마트제조혁신연구본부장 정훈 △친환경융합소재연구본부장 이성구 △감사부장 이승기 △경영기획부장 레

경남

◆한국원자력특정기술원 ◇본부장 △핵비확산본부장 유호식 △핵안보본부장 이나영 ◇부장 △경영기획부장 안길훈 ◇실장 △핵비확산본부 안전조치실장 안승호 △수출입통제실장 김민수 △비확산기술지원센터장 이영욱 △핵안보본부 물리적방호실장 장성순 △사이버보안실장 권국희 △교육훈련센터장 신동훈 △경영기획부 기획예산실장 고문성 △경영지원실장 장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급 △소속보장정책연구실장 여유진

◆MG손해보험 ◇부사장 △경영기획본부장 이덕재 △영업본부장 김상화 ◇전무 △상품업무보상본부장 김태철 △리스크관리본부장(CRO) 이일선 △자산운용본부장 서원철 △소비보호본부장(CCO) 서재영 ◇상무 △상품업무담당(겸)장기보험업무팀장 박재중 △준법감시인(겸)자율준수관리자(겸)개인정보보호책임자(겸)신용정보관리·보호인 이상구 △GA영업본부장(겸)수도권GA담당 주동호 △법인영업본부장(겸)법인영업1담당 박주병 △IT담당(CISO) 박정현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

원 김영린

◆키움증권 ◇임원 선임 △감사총괄임원 김강일 ◇팀장 임명 △법인금융1팀장 김규재

◆KR투자증권 ◇신규채용 △특수금융본부 고문 이현수 △투자금융본부 투자금융 4팀 차장 송원석 △종합금융본부 종합금융팀 부장 김영훈

◆한국MS ◇대표이사 △이지은 ◇전무 △엔터프라이즈 글로벌 사업부문 김원태 △엔터프라이즈 커머셜 사업부문 조원영 △정책협력 및 법무 부문 조재래 ◇상무 △솔루션 사업부문 이한성 △기술지원서비스 부문 모미경 △이사 △엔터프라이즈 커머셜 사업부문 김성준 △파트너 및 SMC 사업부문 윤우석 △파트너 및 SMC 사업부문 김지은 △클라우드 및 AI 부문 최홍식

◆일동제약그룹 ◇승진 · 일동홀딩스 ◇임원 △상무이사 박규태(총무노경팀장) ◇부장 △박종철 △이진희 · 일동제약 ◇임원 △전무 이사 조석제(CP관리실장) △상무이사 김석태(약국영업본부장) ◇부장 △권대호 △김민오 △김태한 △김현준 △박범진 △양원모 △양정은 △이현민 △임종혁 △정경희 △정성윤 △조

노제

◆대원제약 ◇승진 ◇이사사우 △ICT지원부 오준일 △의약1부 김형철 ◇부장 △감사팀 장인철 △채권관리팀 최남석 △ICT혁신팀 이진숙 △영남1팀 김경수 △서울2지부 신종식 △일산팀 김현태 △생산기획팀 김승묵 △생산1팀 김수환 ◇수석연구원(1급급) △RA팀 김도수 △개발팀 박지연 △제제팀 조상호 ◇수석연구원 △분석팀 전은미 ◇책임연구원(2급) △임상팀 이진민 △신약팀 오준현 △제제팀 오동호

◆중앙그룹 · 중앙일보 △인사팀장 정태민 △기획운영팀장 겸 마케팅팀장 이학진 · 중앙홀딩스 △인사팀장 강병철 △메가박스 △재무팀장 진현하 · 중앙일보M&P △B2B솔루션 BU장 겸 BS지원팀장 김도희 △BS1팀장 한석민 △BS2팀장 박주홍

◆아시아투데이 △상무이사/대기자 강동훈 △경제·산업부 총괄에디터 이규성 △생활과학부장 송강섭 △사회부장 양창욱 △의료보건팀장 김시영

◆CEO스코어데일리 △논설실장 박운석 △편집국장 이근형

◆코리타임스 △대표이사 오영진

자본시장 속으로



김 호 준
대신지배구조연구소장

우리 연구소는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사외이사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했다. 어느 한쪽이 옳다는 대결 구도보다는 회사의 성장 전략, 혼란스러운 시국의 경영 안정화와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이사회 효율성 등의 전체 최적화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회사측, 3자 연합의 정관 제안 중 건전한 지배구조를 지향하는 안건들이 꽤 있었지만, 양자택일의 투표로 모두 부결된 것은 매우 아쉽다.

“올해 관심 있게 봐야 할 주종은 어느 회사인가요?” 의결권자문사에서 일하면 매년 주종 시즌 때마다 듣게 되는 질문이다. 올해는 달랐다. 가장 많았던 질문은 단연 한진칼 이슈였다. 땅콩 회항, 물컵 사건 등에 이어 최근 형제간 경영권 분쟁 이슈로 뜨거웠기 때문이다. 대부분 질문은 곧장 본론으로 직행한다. “회사측과 3자 연합 중 어디를 지지하세요?”

2019년 주종에서의 의결권 행사 자격을 마감하는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현 경영진 지분 37.1%와 반경영진인 이른바 ‘3자 연합’ (31.98%)은 지분 규모가 비슷했다. 2월 20일 추가 공시에서는 38.10%대 37.08%를 기록해 그야말로 박빙이었다.

필자는 주종 전에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용 면에서는 아직 안건이 공고되기 전이었고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선불리 ‘누구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고 싶지 않아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안건 발표 전이라도 절차상 관련 포인트는 분명했다. 회사가 발표하는 주종 운영 절차만 봐도 회사의 혁신 의지를 확인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먼저 주주제안 무력화 방안 활용 여부다. 하지만 이번 건은 3자 연합의 주주제안 순서를 뒤로 배치해 부결시키는 일반적

인 방법은 원천적으로 쓰기 어려웠다. 정관 이사 수가 ‘3명 이상-X명 이하’와 같이 특정된 경우에는, 회사 안건을 앞으로 배치해 X명까지 선임한 후 정원을 채우면 그 뒤의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한진칼의 정관은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로 규정해 이사 수에 상한이 없어도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부결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 방법은 쓰지 않았다. 한진칼은 회사측 이사 안건들은 2-1-2-5호 안건으로, 주주제안으로 올라온 이사 안건들은 2-6-2-9호 안건까지 개별로 상정했다.

다음으로 슈퍼주종데이 활용 여부다. 주종 의결은 ‘출석 주주’의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우호 주주 지분 수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회사는 주주들이 출석하지 않을수록 표결에 유리하다. 주주들이 적게 참석할 만한 날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단, 상대측의 지분이 고정돼 있으면서 소액주주의 비중이 적은 경우라면 이러한 장점은 다소 줄어든다. 주종 분산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작용할 것

이란 기대가 무색하게 올해도 주종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한진칼은 상장사들의 주종이 가장 많은 날인 3월 27일을 주종일로 정했다.

양측의 회사 발전 방안은 어떨까. 회사측은 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강화, 유류 자산 및 비주력사업 매각, 주주 가치 제고, 기업문화 개선 등을 제시했다. 3자 연합은 전문경영인 선임과 더불어 적자에 허덕이던 아시아 최대 항공사 JAL의 비약적인 턴어라운드를 이루어 낸 일본 3대 경영의 신이나모리 가즈오의 전략을 적용하고자 했다. 핵심은 비행기 내에서 통신과 직원들을 통해 마진율이 높은 면세품 판매를 증대하는 전략과 각 단위별 재산성 관리를 극대화하는 아메바 경영에 있다. SKT의 전 부회장과 관리회계 전문가를 이사 후보로 추천한 이유이다. 하지만 100군데 이상의 언론과 기자간담회를 했다는 3자 연합의 제대로 된 입장과 전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기사의 대부분은 어디가 이길까, 누가 누구 편인가를 다루는 대결 구도였다.

자문사들의 의견은 각각 달랐다. 크게 ‘회사측 찬성/3자 연합 기권 권고’, ‘회사측 반대/3자 연합 찬성’으로 나뉘었다. 당 연구소는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는 사외이사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했다. 어

느 한쪽이 옳다는 대결 구도보다는 회사의 성장 전략, 혼란스러운 시국의 경영 안정화와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이사회 효율성 등의 전체 최적화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칫 이사회 비대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해외 사례로 볼 때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회사측, 3자 연합의 정관 제안 중 건전한 지배구조를 지향하는 안건들이 꽤 있었지만, 양자택일의 투표로 모두 부결된 것은 매우 아쉽다. 정관은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치열한 방향성 투표만으로는 통과될 수 없다.

결과는 회사측의 완승으로 끝났다. 캐스팅 보트로 여겨진 국민연금이 회사측 편을 들어줬고, 3자 연합 중 하나인 반도건설이 공시 위반으로 3.2%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지난해 주주 적격 혐의에 이어 법률 검토의 허점을 이번에도 드러냈다. 최근에도 지분 취득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양측의 상상과 공존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회사 발전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어떤 전략이 더 좋은지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 이사회를 보고 싶은 건 필자만의 희망 사항일까.

정책발언대

김두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2020년 시작과 함께 중국의 한 도시에서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전염 예방과 방역 활동,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소비 시장이 평소보다 위축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자영업, 여행업을 비롯해 여러 분야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농업도 피해를 입은 분야 중 하나다. 농산물은 시기에 맞게 출하하고 소비가 이뤄져야 하는데, 소비가 되지 않으니 농업인들은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경북 지역이 주산지인 미나리는 출하를 앞두고 소비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봄철 겨우내 잃

미나리로 느끼는 건강한 봄

어버렸던 입맛을 깨워주는 미나리는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몸의 면역을 높이는 데 좋은 농산물이다.

미나리는 예부터 많이 재배하고 즐겨 먹던 채소 중 하나로, 여러 문헌에도 그 사실이 기록돼 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집집마다 연못 주위에 미나리를 길렀다고 하며,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대왕 시절 미나리김치를 제상에 올리라는 제사 예법이 적혀 있다. ‘동의보감’에는 미나리가 정신을 맑게 하고 정기를 보충해 주며, 가슴이 답답하고 입안이 마르는 증상을 멎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음주 후 열독을 치료하고, 대장과 소장을 이롭게 한다고 나와 있다. 지금도 한방에서는 미나리의 잎과 줄기를 한약재로 취급하고 있다.

미나리는 체내로 들어온 각종 유해물질을 해독하는 간에 특히 좋은 채소이다. 미나리에 함유된 이소람네티논은 간 기능을 활

성화해주고, 페르시카린은 간 독성물질 해독에 탁월해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 미나리에는 비타민 A, B, C, E 등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체내의 독소, 노폐물 등을 배출시켜 염증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미나리에 함유된 각종 비타민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칼륨은 혈액 내 나트륨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퀘르세틴, 캠페롤 등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항산화 효과가 우수하며,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나리는 성질이 차서 속이 냉하거나 약한 사람은 적당히 섭취해야 하는데 보통 하루에 70g, 한 줌 정도가 적정량이다. 지금처럼 이른 봄에는 깨끗이 씻어 생으로 무쳐 먹거나 살짝 데쳐 먹으면 미나리 특유의 알싸한 향과 단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봄

이 깊어져 줄기가 굵어지면 데쳐서 나물이나 국, 볶음, 전 등을 만들어 먹으면 좋다. 몇 해 전부터는 두툼하게 썰어 구운 삼겹살에 미나리를 싸 먹는 것이 인기다.

그래도 봄이다. 마스크를 썼을지언정 피부에 닿는 바람은 분명 봄의 그것이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나마 완만하게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인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일상이 간헐적인 국민에게도,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도 분명 좋은 소식일 것이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모두가 지치고 우울한 시기, 미나리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봄이 주는 파릇한 맛과 향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몸속 독소를 배출시켜 환절기 면역력을 챙기고, 시름에 찬 농업인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탁월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조르주 풍피두 명언
“정직가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고, 정상배(政尙輩)는 자신을 위해 국가가 봉사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프랑스 대통령. 제5공화국 헌법을 초안하고 연속 4차례나 총리를 지냈고 드골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다. 특히 투명한 우리와 원색의 절굴 구조로 유명한 국립현대미술관 풍피두센터는 8년간의 대공사 끝에 개관했다. 그는 오늘 숨졌다. 1911-1974.

☆ 고사성어 / 토포악발(吐哺握髮)
먹던 것을 뱉고, 감고 있던 머리를 거머쥔다는 뜻으로, 현사(賢士)를 얻기 위해 애쓰는 비유하는 말. 원전은 한시외전(韓詩外傳). 주(周)나라 주공(周公) 아들 백금(伯禽)이 노(魯)나라로 떠날 때 그가 한 말. “나는 한 번 씻을 때 세 번 머리를 거머쥐고[一沐三握髮], 한 번 먹을 때 세 번 음식을 뱉으면서[一飯三吐哺] 천하의 현명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 시사상식 / 덩 머니(dumb money)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일컫는다. 기관 투자자나 규모가 큰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지칭하는 스마트 머니(smart money)와 비견되는 자금이다. 덩 머니는 고점에 투자하고 저점에 포지션을 정리해 손해를 보는 패턴을 보인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장(壯)하다
‘기상이나 인품이 훌륭하다’, ‘크고 성대하다’, ‘마음이 흐릿하고 자랑스럽다’의 뜻을 나타낸다. ‘장(壯)’에 우리말 접미사 ‘-하다’가 붙어 이루어진 형용사.

☆ 유머 / 속셈
부부가 들른 전시회. 나뭇잎 한 장으로 몸을 가린 이브 그림 앞에서 남편이 오래 머무르자 아내가 “여보, 늦가을에 다시 한번 와요. 네에?”라고 하자 그의 대답.
“그때쯤 낙엽이 질까?”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사수첩



유창욱 산업부/woogi@

대화가 필요하다

로 국내 공장까지 생산 차질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올해 2월 완성차 5사의 내수 판매량도 지난해보다 21.6% 급감했다.

산업계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 사용으로 현재 진행 중인 수요 급감기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요

가 폭증하면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의 한시적 완화와 파견·대체근로 허용으로 생산 극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시적 노동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는 노동계도 일정 부분 공감했지만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급속노조 관계자는 “이미 유럽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한시적

인 조업 단축에 노사정이 합의했다”면서도 영구적인 규제 완화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노사의 견해에는 간극이 있었다. 대변하는 입장이 다르니 자연스러운 일이다. 희망적인 건 노사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 인식을 같이하는 만큼 구체적 방법론은 함께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

산업계가 위기 상황에서의 해고 금지, 안전한 노동 환경 등 노동계가 원하는 선결 조건을 보장하며 한시적인 규제 완화를 제안해 보는 건 어떨까. 노사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려면 대화가 필요하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논설실장 추창근 |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홍춘욱의 전쟁을 바꾼 경제 이야기

17세기 네덜란드 독립 이끈 두 가지

富有 제식훈련으로 스페인軍을 무찌르다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전쟁은 냉혹한 스승”이라고 말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여러 전쟁에서 승패를 가른 요인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위대한 장군이나 용맹한 병사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경우가 많다. 획기적인 전략·전술이나 우월한 무기체계 등의 요인도 결국 전쟁 외부에 있는 경제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투데이는 ‘전쟁을 바꾼 경제 이야기’를 통해 한 나라의 흥망을 결정지은 몇몇 전쟁과 그 이면의 경제적 배경을 살펴볼 예정이다. 필자인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이코노미스트다.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뒤 경제학으로 석사·박사를 받았다. 인문학적 주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거나, 경제학적 주제를 통해 인문학적 의미를 발견하는 글 등 다수의 글을 써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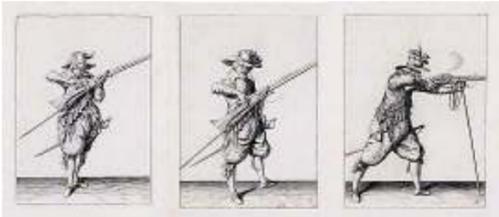
대를 격파할 수 있었지만, 1588년 영국을 정벌하기 위해 출발했던 무적함대는 처참한 패배를 기록했다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즉 네덜란드 지방에서 세금을 거둬 전쟁 비용을 조달할 계획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왕에게 세금을 곧잘 바쳤지만, 점점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마찰이 발생했다. 특히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는 가톨릭 세력의 맹주로 적극적으로 종교전쟁에 뛰어들어, 네덜란드 북부지방은 개신교의 세력이 컸다는 게 문제를 일으켰다. 결국 1567년 반란의 불길은 네덜란드에서 치솟았고, 스페인은 군대를 파견하면서 80년에 걸친 독립전쟁이 시작됐다.

테르시오 방진을 깨기 위한 화승총
전쟁 초기에는 스페인의 압도적인 강세



17세기 네덜란드 독립운동의 지도자인 마우리츠 백작은 스페인군의 테르시오 방진을 무수기 위한 화승총 사용 숙달을 위해 제식훈련을 고안했다. 아래 사진은 병사들의 훈련 구분동작을 묘사한 동판화.



가 이어졌다. 오랜 전쟁으로 잘 단련된 장군, 그리고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각지의 용병을 고용할 수 있었기에 스페인의 승리는 시간문제처럼 보였다. 그러나 초기 스페인군이 중립과 귀족들을 처형하는 등 잔혹한 행동을 보이면서 민심을 잃은 데다, 스페인이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터키 등과 연이어 전쟁을 벌이면서 네덜란드도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었다. 특히 1587년부터 독립전쟁을 지도한 나사우의 마우리츠 백작이 도입한 새로운 전술은 전황을 돌려놓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마우리츠 백작은 당시 스페인 군대가 채택한 주력 전술, 테르시오 방진을 쳐부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승총(및 머스킷 총)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때 당시 화승총은 대단히 써먹기 어려운 골칫덩어리였다. 왜냐하면 일단 사용방법이 너무 어려웠다. 총을 쏘기 위해서는 먼저 총구에 화약, 몽치, 총알, 몽치 순으로 장전하고 쏘을대를 사용해 다져 넣고 다른 종류의 화약을 약실에 넣은 후에 불이 붙은 화승을 격발 장치에

붙이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 복잡한 과정 중 하나만 틀려도 총은 발사되지 않았다.

통제·훈련 ‘군사개혁’으로 승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은 대안인 바로 조직적인 훈련이었다. 그는 화승총을 장전하고 발사하는 복잡한 움직임을 42개로 나누고, 각 동작마다 이름을 붙인 것은 물론 해당 동작을 하도록 명하는 적정한 구령까지 정했다. 42단계의 구분동작을 반복 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혁신은 바로 ‘제식훈련’이었다. 마우리츠는 서로 발을 맞춤으로써 모든 부대원이 미리 정해진 형식에 따라 전후좌우로 이동하여 종대에 서 횡대로, 다시 종대로 대형을 바꿀 수 있게 만들었다. 특히 제식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진’이었다. 화승총을 든 병사들이 방진을 짜고 전투에 임했을 때, 맨 앞 열의 병사가 총을 쏘 후 자기가 속한 대열의 제일 뒤로 달려가서 재장전하는 동안 두 번째 열의 병사가 총을 쏘는 것이다. 연습을 거듭하고 방진을 적절하게 조정하면, 연속적인 일제사격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 전술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총탄이 날아다니고, 적의 창병이 돌격해오는 상황에서 열의 제일 뒤로 이동하던 병사가 도망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우리츠 백작은 두 가지 방법을 고안해 냈다. 첫 번째 방법은 지휘관이 통제하기 쉽게 부대의 규모를 줄이는 한편, 하사관 제도를 도입해 병사들이 전열에서 이탈해서 도망가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훨씬 효과적인 두 번째 방법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군대를 훈련시킴으로써 병사들 사이에 원초적이고 매우 강력한 사회적 유대를 형성시키는 것이었다. 깊은 유대감을 가진 병사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에 처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명령에 복종하고, 또 전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돌격하는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했다.

마우리츠의 개혁은 네덜란드의 독립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수많은 나라에 강한 자극을 주었다. 스페인과 상시적인 전쟁상태에 있었던 프랑스가 제일 먼저 네덜란드의 훈련법을 채택했고, 특히 스웨덴의 구스타프 2세(Gustav II Adolf)는 네덜란드의 훈련법에 신형 대포를 적극 활용하는 전술을 개발하여 30년 전쟁(1631년, 브라이텐펠트 전투)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다. 17세기 중반 이후 서유럽의 군대가 다른 지역 군대와 만나 거의 패배하지 않은 이유가 화약 무기의 지속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상대의 눈동자가 보이는 가까운 거리에서 벌어지는 총격전에서도 도망치지 않는 전투집단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던 훈련법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병력 훈련비용 ‘경제력’이 뒷받침

다만 네덜란드의 개혁을 모든 유럽 나라가 모방할 수는 없었다. 네덜란드처럼 부유한 나라가 아니고서는 오랜 기간 병력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마우리츠 백작의 성공은 그가 군사전략의 천재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상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는 환경이었기에 가능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AR리서치 대표

시설

3월 수출 선방했지만 4월부터 추락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3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0.2% 줄어든 469억1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은 6.4%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 후퇴와 공급망 붕괴로 큰 폭의 수출 하락이 우려됐던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선방한 실적으로 볼 수 있다.

20대 주력산업 가운데 11개 산업의 수출이 뒷걸음질했다. 가장 비중이 큰 반도체가 단가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2.7% 감소했고, 석유화학과 석유제품이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각각 9.0%, 5.9% 줄었다. 일반기계(-3.8%), 철강(-6.5%), 선박(-31.4%), 디스플레이(-12.8%), 섬유(-8.8%)의 감소폭도 컸다. 반면 자동차(3.0%), 무선통신기기(13.3%), 컴퓨터(82.3%), 바이오헬스(23.7%) 등이 늘었다. 3월 수출 단가가 11.7% 급락했는데 물량은 13.1% 증가했다. 산업부는 우리 수출산업의 펀더멘털이 아직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4월 이후 수출이 급격히 줄어든 게 분명하다는 점이다. 3월 수출은 그나마 미국(17.3%), 유럽연합(10.0%), 일본(13.9%), 중동(7.9%) 등의 증가세가 떠받쳤다. 중국(-5.8%), 인도(-9.4%), 아세안(1.9%), 중남미(-25.8%) 등은 여전히 큰 폭 감소를 면치 못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19의 팬데믹을 선언한 것은 3월 11일이다. 이후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감염병이 확산하는 속도는 무서울 정도다. 몇몇 나라는 확진자와 사망자에서 발원지인 중국을 앞섰다.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각국의 국경폐쇄, 시민 이동제한, 공장 가동중단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 또한 마비상태에 빠져들었다. 이 사태가 얼마나 더 번질지, 언제 진정될 수 있을지 아직 짐작조차 어렵다.

세계화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가 얼어붙고 수요는 감소한다. 3월 수출단가가 크게 내린 것이 말해 준다. 코로나 쇼크는 이제 시작이고,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4월 수출실적부터 급격한 추락과 부진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코로나 사태의 악영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정부도 이 점을 무엇보다 우려하고 있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 확대, 중소·중견기업 유동성 지원, 신시장 수출 마케팅과 함께 입국제한 등 애로사항 해결에 집중기로 했다. 그럼에도 역부족이다. 글로벌 시장 자체가 축소되는 마당이고 보면 뾰족한 대응 방안도 없다. 수출기업들이 당장의 경영난 등으로 무너져 시장을 상실하고, 앞으로 여건이 나아질 때 회복의 기회마저 잃는 일은 막아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창의적 방안을 빨리 마련하고 즉각 실행해야 한다.

한 킷



작은 나무 한 그루, 집 안에라도...

식목일을 앞두고 지자체의 나무 심기 일정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속속 취소되고 있다. 대규모 행사는 취소됐지만, 집 안에 작은 나무 한 그루 들여 답답한 일상에 활기를 더해 보는 것은 어떨까. 사진은 경기도 김포 산림조합나무전시장에서 시민들이 묘목을 고르는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rean@



SAMSUNG



응~건조기 중엔 나만 1등급이야
2등급 시면 후회한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받았다며?

국내유일 건조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삼성 그랑데^{AI}답게

세탁에서 건조까지 하나되어 맞추다



세탁기 패널에서
건조기까지 편리한 조작
[올인원 컨트롤]



세탁 완료된 코스와
가장 적합한 이물 코스를
추천드려요
[AI코스연동]



우리집 세탁-건조 패턴에
맞춰주는
[AI습관기억]



세탁에서 건조까지
정확하고 빠르게
[세탁에서 건조까지 36분]



세탁물의 양에 맞는
세제를 투입 중입니다
[대화형 알림창]

삼성 그랑데^{AI}

1등급만의 으뜸효율가전 대축제

삼성 그랑데^{AI} 행사모델 동시구매 시, 정부환급금 포함 최대 30만 상당 혜택
(2020.3.23~2020.4.16)

※ 자체 혜택은 포인트 혹은 캐시백으로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문의하세요

* 올인원 컨트롤 모델은 직렬설치 권장이나, 병렬 설치도 가능

* AI 코스연동은 삼성 SmartThings 앱 내 건조기 탭에서 'AI 코스 연동' 기능 사용을 설정해야 하며, 세탁기, 건조기 모두 SmartThings 내 같은 장소에 등록된 경우에 사용 가능함, 세탁기 종료 시점에 건조기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함

* 세탁-건조 36분 - WF2*7**00K* 셔츠코스 세탁 시간 17분, DV161*7**** 셔츠코스 건조시간 19분 - 상온 조건에서 긴팔셔츠 1벌(폴리에스테르 65%/면35% 조합) 세탁/건조 결과임 - 자사 시험법에 따른 KATRI 시험치로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국내유일 건조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 20년 3월 5일 한국에너지공단 의류건조기 품목 신고 기준, 일부 모델 제외